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사 연수 교재





소 개

1. 국립국어원 소개 1
2. 국어문화학교 소개 4
3.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 8
4.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 소개 13

교과목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말하기(구어) 특징과 자료 활용 방법
: (양수경, 서울대학교) 15
- 북한이탈주민의 표준어 어휘 사용 양상과 외래어 익히기
: (이기연, 서울대학교) 39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 및 정책
: (전연숙, 남북하나재단) 55
-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75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립국어원 국어 정보 활용법 : (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 99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현장 정보 공유 및 토론 117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육과 실제 : (변정훈, 여명학교 교사)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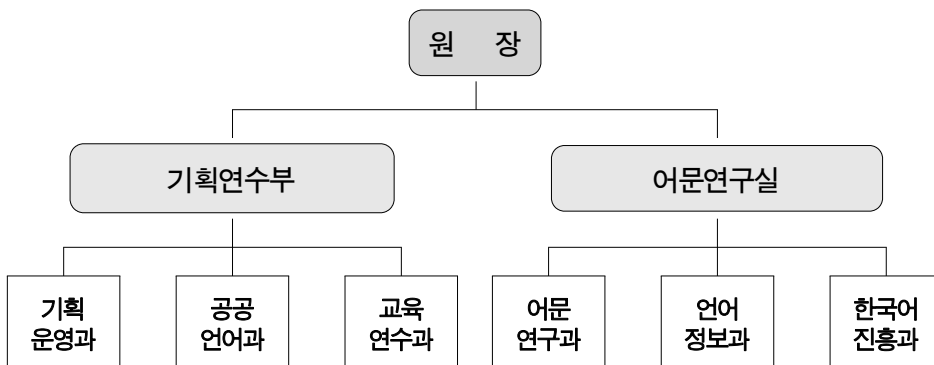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원 장	기획 연수부	<p>◆ 기획운영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안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p>◆ 공공언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p>◆ 교육연수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지원에 관한 사항 국어 능력 검정 및 국어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어문 연구실	<p>◆ 어문연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언어와 문자, 어문규범 및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국어 관련 분야 국내외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보급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p>◆ 언어정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와 문자의 정보화·표준화 관련 연구 및 실태 조사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및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언어와 문자 관련 문헌이나 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p>◆ 한국어진흥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재와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하는 일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 전화 : 1599-9979)

- 상담 시간 :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섬표, 마침표’ :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은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malteo.korean.go.kr>)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 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한글의 탄생과 역사/아름다운 한글/생활 속 한글/한글과 교육/한글의 진화와 미래/학술 정보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과 더불어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이 신청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약 3,100명에 이르러 13년간 약 2만 9천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 (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1.	•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2.	•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운영 시작
2010. 6.	• 정규 과정 외 국가보훈처, 국회사무처 등 원외 기획 과정(15회) 운영
2011.	•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실시 • 경기도 교육청, 강서 교육청과 업무 협정으로 지역 내 학생 대상 우리말 교실 운영
2012.	•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정으로 특별 과정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운영 •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13.	• 국어문화시민강좌, 대학강사 어문 규정 특별 과정 운영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기획 과정 운영 확대 • 지역아동센터 쓱쓱! 국어 교실 운영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연 도	과 정	국어전문교육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41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4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5	3,174	316	27,804
2011년		29	2,701	334	28,689
2012년		36	3,841	486	34,347
2013년		25	3,141	504	25,264
합 계		304	29,761	3,364	259,931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한글 맞춤법(I, II),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I, II),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훈민정음의 이해, 쉬운 언어 쓰기,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신청 방법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자격 :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읽고 쓰기 :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협력적 의사소통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요건 :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 쉬운 공공언어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 문화 등
 -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http://edu.korean.go.kr>)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 신청하고 학습할 수 있음.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 ●

추진 배경

우리 고유의 말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겨레 정체성의 근간이며,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발전시키는 창조경제·문화융성의 토대이다.

*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이며 유네스코 지정(1997년) 세계기록문화유산

-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 <한글학자, 주시경>
-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2008년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높아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어려운 공공 언어 사용, 축약·변형 등 국어의 오·남용과 외계어 사용 증가로 국민의 국어 의식과 언어생활이 점차 빈곤화되고,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비속어, 저속어 및 폭력적 언어가 확산되고 있으며, 청소년 언어생활이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국외) 세종학당 개설 현황 : 2007년 3개국 13개소 → 2013년 52개국 120개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및 한국어 학습의 열기 고조)

* (국내) 한글날 공휴일 제외(1991~2012), 세계화의 물결로 한글·한국어 정체성 약화

공공 부문의 어려운 언어 사용, 방송·인터넷의 저품격 언어 확산, 청소년의 욕설 일상화 → 한글날이 공휴일 재지정을 계기로, 범국민적 언어문화 개선 운동 필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언어문화 개선 범국민연합(2013. 12. 18. 출범)*을 중심으로 규범과 일본어투 용어 청산 중심의 정화(순화)운동을 넘어, 언어의 유희적 속성과 문화 창조력, 디지털 언중의 감성을 고려한 다양한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안녕! 우리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 한글·국어, 방송·인터넷, 교육·청소년, 네이버·다음·구글 등 1,500여 개 단체 참여

* 방송사 아나운서, 배우, 디자이너, 가수, 개그맨 등 ‘우리말 수호천사’로 위촉(총 19명)

【 우리 시대 언어의 자화상 】

▶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로 가득한 공공언어

- 공공부문에서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사용으로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가 낮음.

[어려운 용어 사례]

* (정책 용어) 레인보우 스쿨(→무지개 학교), 농촌 어메니티 체험(→쾌적한 농촌체험), 클린교차로(→안전교차로), U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 Fast Track 제도(→신속처리제도), Barrier Free(→무장애, 장애 없는)

* (공공기관명) 한국잡월드(Job World), 코레일(KORAIL), 코스콤, LH, NH, SH, 케이워터(K-Water)

▶ 저품격 언어가 난무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자막 표기 오류 및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 등 부적절한 방송언어 심각

* 개선 권고 : 2011년 159건 → 2012년 1,267건 → 2013년 6,815건

[부적절 사례]

* (비속어 및 폭력적 표현) 쪽팔려, 꼴통, 장땡, 죽일 거다

* (외국어 남용) 캅 다운, 애플힙, 에이스 퍼펙트 가이 등

▶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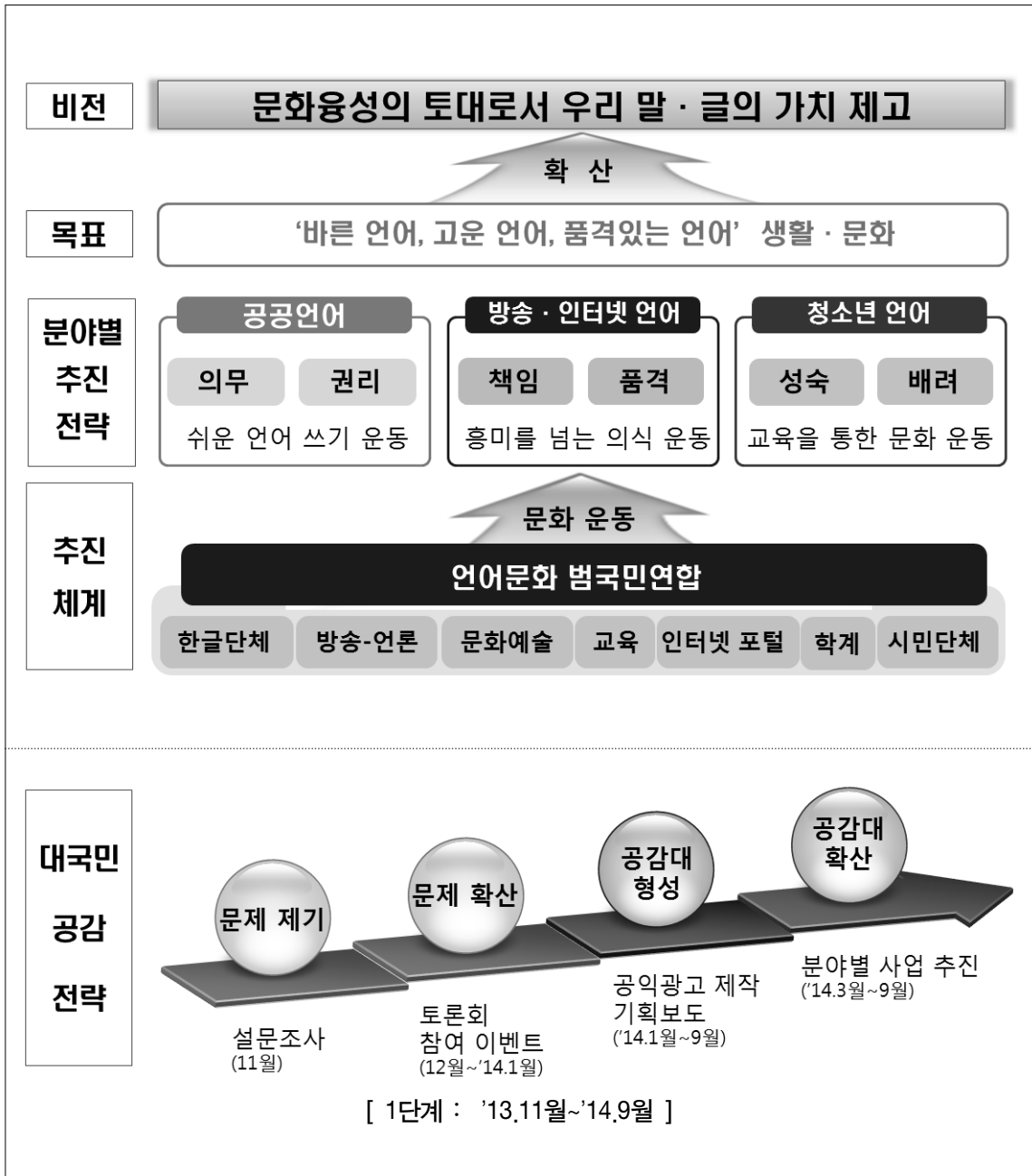
- 청소년이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58.2%)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의 94.6%가 욕설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욕설 사용 이유) ① 습관이 되어서, ② 남들이 사용하니까, ③ 말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④ 친구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 (욕설 사용 양상) 욕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속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더 거친 표현이 자주 등장

* (청소년 사용 욕의 빈도 순위) 씨발> 병신> 개새끼> 미친놈> 존나> 지랄 등

추진 목표 및 전략



‘안녕! 우리말’ 운동 추진 방향

안녕! 우리말
우리말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아름다운 언어문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은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그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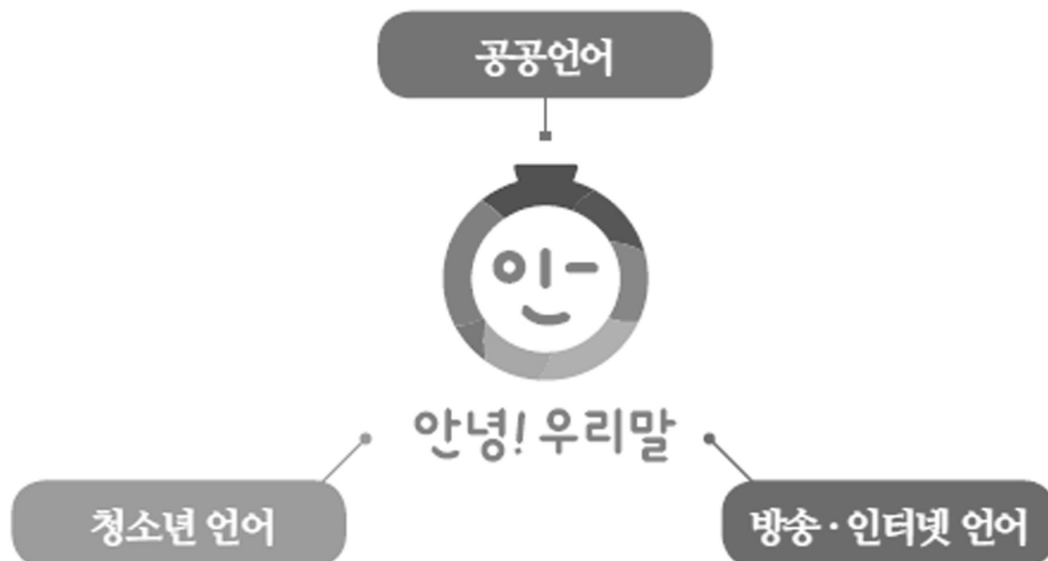
문화융성의 토대이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 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범국민연합 언어문화개선운동은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우리 말글을 스스로 가꾸는 실천입니다.



안녕! 우리말

안녕! 우리말'은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운동명(캠페인명)입니다.
'안녕'은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로
'안녕! 우리말'은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정답게 맞이하고, 욕설이나
비속어를 떠나보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언어

- | 쉬운 언어는 인권이다.
- | 공공기관의 의무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지역·민간 부문으로 확산 지원

방송·인터넷 언어

- | 인터넷, 디지털 기반 시대 언어의 공공성과 책임성 증가
- | 책임 있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흥미를 넘는 언어 의식 개선 운동 추진

청소년 언어

- | '문제' 중심의 해결에서 사회적 협업을 통한 '문화' 치유
- | 성숙한 언어 환경(가족, 학교, 사회) 조성 and 배려의 언어 가치 교육을 기반으로 즐거운 언어문화 운동 추진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 소개



개 관

공무원, 매체 종사자, 일반 국민 등에 대한 국어 의식 환기로 국어의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국어 바로쓰기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어 보급, 공공언어 개선 등 국어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이 지원하고 국어 단체, 우리말 사랑 동아리 등 국어문화 정립에 관심이 있는 각 활동 단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바른 말 사용으로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 언론기관에서는 품격 있는 방송언어 사용으로 건강한 언어환경을 실현하고, 일반국민 간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조성으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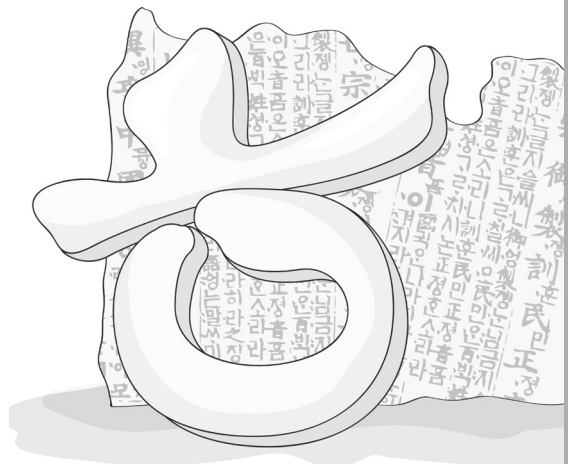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등 난해한 용어 사용으로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송에서 막말과 품격 낮은 언어 표현 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물을 높이는 잘못된 존대 표현 사용 증가로 언어 사용의 혼란을 초래하여 우리말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청소년층에서는 욕설과 비속어 사용 일상화로 청소년 인성 및 교우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전용 누리집 운영, ‘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말하기(구어) 특징과 자료 활용 방법

양 수 경 | 서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말하기(구어) 특징과 자료 활용 방법

양 수 경 | 서울대학교



1.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 문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는 언어 적응 문제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문제’와 ‘심리적 타자화 문제’로 대별된다. 먼저 실제 존재하는 남북한의 어휘, 음운, 화행의 차이와 이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은 의사소통할 때 서로 간에 오해나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지역 방언 화자로 인식되기보다 분단 방언인 ‘북한어’ 화자로서 인식되면서 남한 사람들로 부터 심리적으로 타자화되는 문제를 겪는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데 이러한 남한인들의 인식이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1.1. 의사소통 문제

표면상으로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의 말은 우리와의 의사소통에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 소수자로 편입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생소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어휘들과 의사소통상황들은 수시로 불안과 긴장, 두려움을 야기할 만큼 그들에겐 이질적인 것이다¹⁾. 안타깝게도 이질화된 언어로 인한 부담은 오로지 이 사회의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몫이다. 북한이탈주민 9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정경일, 2001)에서 조사 대상자의 71.9%가 남북한 언어 차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실태 조사(문금현 외, 2006)의 심층 면접 결과에서도 남북한 언어 차이를 대부분 경험한 것으로 대답하였고 언어 차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제적 의사소통 문제를 어휘, 음운, 화용 층위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김석향(2005)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언어 이질화의 정도는 남한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언어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짐작할 수 있다.

(1) 남북한 어휘 차이로 인한 문제

남한어와 북한어라는 분단 방언적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어휘 층위이다. 남북한 어휘 대응을 고려할 때, 남북한 어휘는 남북 동형동의어, 남북 이형동의어, 남북 동형이의어, 남한 특수어, 북한 특수어로 분류된다(신명선 외, 2012). 이 중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을 느끼는 어휘 부류는 남한 특수어, 남북 이형동의어, 남북 동형이의어이다.

남한 특수어는 ‘퀵서비스’, ‘공채’처럼 남한에만 존재하는 문물, 현상, 개념 등을 가리키는 어휘로 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생소한 사회·문화적 경험과 관련된다. 남북 이형동의어는 ‘랭동기 : 냉장고’처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데 남북한이 서로 다른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남북 동형이의어는 같은 어휘 형태를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바쁘다’가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빠듯하다’의 의미로도 쓰이는 예를 들 수 있다.

이 중 남한 특수어와 남북 이형동의어는 경우에 따라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남북 동형이의어는 서로 의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되면 경우에 따라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어종별로는 한자어와 외래어, 특히 남한 어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 외래어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2) 남북한 음운 차이로 인한 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의 달라진 음가로 인해 의사소통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특히 서로 공유되는 맥락이 없는 인명, 지명, 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를 언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빈번하다. 모음 /으/는 원순화되어 남한 사람들 귀에 /우/와 비슷하게 들리며, 남한의 /오/보다 저모음이고 원순성이 덜한 모음 /오/는 /어/와의 분간이 어렵다(이현복, 2002; 곽충구 2003ㄱ; 이호영 외, 2009). 또한 이러한 모음의 음가 차이와 더불어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방언인 함경 방언(동북, 육진 방언)의 빠른 말속도, 고유한 성조 및 억양 패턴은 서로 공유하는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용 전달에도 지장을 주기도 한다.

Gluszek and Dovidio(2010)에 따르면, 외국인 악센트(nonnative accent)는 의사소통의 제약, 낙인화(stigmatization), 낮은 사회 소속감과 연관된다. 지역 방언 화자들은 낙인화는 비슷한 수준으로 경험하지만, 의사소통 문제와 국가 소속감 문제는 덜 겪는 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음운 차이로 겪는 여러 가지 의사소통 문제는 지역 방언 화자들보다는 외국인 화자들이 경험하는 것에 가깝다.

(3) 남북한 화행 차이로 인한 문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사 표현, 요청 표현, 거절 표현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언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문금현, 2006). 이들은 남한 사람들보다 칭찬, 감사, 사과 표현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다고 하며, 상대의 요청에 대한 거절 표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배려를 하지 않고(예: 지금 돈이 없어서 유감이라든가 후일을 기약하는 등) 직접적인 거절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이 남한인의 완곡한 거절(“생각해 볼게”,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등)이나 빈 인사말(“다음에 뵈요” 등)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였다가 실망한 사례, “-해 줄래?”, “-면 좋겠다”, “-면 어떨까?” 등과 같이 요청할 때 간접 화행을 선호하는 남한의 화법에 이질감을 느낀다는 사례들은 남북한 간에 실재하는 의사소통규칙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양수경·권순희, 2007).

1.2. 심리적 타자화 문제

북한이탈주민은 단순한 동북, 육진, 서북 방언 화자가 아니라 ‘북한어’ 화자로 뭉뚱그려 인식되면서, 다른 남한 지역 방언 화자들보다 타자화되는(심리적 이질감, 거리감) 정도가 크다.

남한 언중들이 개별 북한 방언에 대한 방언 인지가 어렵다는 것은 언어 의식 조사나 방언 구획 인지 연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충남 지역 언중들의 심리적 방언구획을 조사한 연구(강현석, 2010)에서 제보자들은 북한 방언 전체, 즉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북을 하나의 더미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북한 방언들과의 접촉 부족으로 북한 방언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감퇴한 결과이며, 남한 방언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북한 방언과 그 방언 화자들을 뭉뚱그려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단순한 심리적 거리감, 이질감에서 더 나아가,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이나 거부감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북한에 대한 무시의 감정이 남한인들의 태도를 통해 은연 중 전달되는 경우도 많다. 북한어는 가난하고 촌스러운 동네인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낙인’(stigma)이 되는 것이다(조정아 외, 2006). 북한이탈주민이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은 사회 계층적 차별감에서 비롯되는 모멸감에 더 가깝다(신명선 외, 2010).

남한인들이 무심코 던지는 ‘어디서 오셨어요?’, ‘조선족이세요?’ 말 한 마디, 낯선 시선 앞에서 북한 이탈주민은 외집단의 일원으로 타자화되면서 심리적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 되면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북한식 말투의 낙인화(stigmatization)를 두려워하여 아예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소극적 대처는 의사소통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제한된 반경 안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이들은 낙인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알아듣고 어색하지 않은 정도가 되면 취업이나 이직을 할 때 북한 사람임을 숨기거나 ‘강원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문제는 ‘언어적 낙인’이 제거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의사소통의 부자유스러움과 인간관계의 왜곡이다(조정아 외, 2006)

2. 북한이탈주민의 구어 특성

2.1. 발음²⁾

(1) 모음 /으, 우/

표준 발음에서 /으/와 /우/는 [원순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ɯ]와 [u]로 발음된다. 일부 북한 이탈주민은 /으/에 [원순성]을 더해 [ɸ]에 가깝게 발음했는데 특히 육진 방언권 화자 발음에서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한 지역 출신 화자들에게 /우/로 들려 결국 ‘으 : 우’의 대립이 상실된 것으로 지각된다.



그림 1. 모음 ‘으’를 발음할 때의 입 모양 - 북한이탈주민

(2) 모음 /어, 오/

표준 발음의 /어/는 단음일 경우는 [ɐ]로 장음일 경우는 [æ]로 실현되나 젊은 세대로 올수록 음장이 소실되면서 [ɐ]로 합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오/는 [o]로 실현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어/는 환경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æ]에 가깝게 발음되어 표준 발음에 비해 조음 영역이 좁기는 하지만 남한 방언 화자들에게 /어/로 인식되기에는 충분하다³⁾.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오/는 표준 발음과 동일하게 [o]로 발음되기도 하지만 화자에 따라서는 저모음 [ɐ]로 발음되기도 한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의 발음에서 [오]의 원순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æ] 또는 [ɐ]로 실현됨으로써 남한 방언 화자들에게는 모음 /어/로 들리게 된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 발음의 징표가 되고 남한 방언 화자와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2) ‘모음 /으, 우/, /어, 오/, 자음 /ㅅ, ㅆ/’에 대한 기술은 2009년 8월~9월, 입국 1년 미만(4명 제외)의 새터민 39명을 대상으로 한 이호영 외(2009)의 발음 실태 조사 결과이다. 출처 : 박성현(2010), 새터민 발음교육, 『새터민을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 자료집』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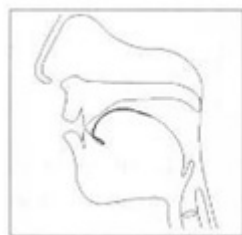
3) 자유발화에서 일부 서북방언 출신 화자는 /어/를 [ɐ]로 실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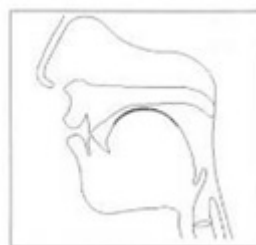
그림 2. 모음 '오'를 발음할 때의 입 모양 - 북한이탈주민

(3) 자음 /ㅅ, ㅆ/

표준 발음에서 /ㅅ, ㅆ/는 /이/ 모음 앞에서는 경구개음 [c, c']로 실현되며 기타 모음 앞에서는 치조음 [s, s']로 실현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 모음 앞에서도 치조음으로 실현시키는 화자의 비율이 꽤 높았다. 평음 /ㅅ/보다는 경음 /ㅆ/의 치경음 실현이 많고 서북 방언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ㅆ/의 치조음 실현 비율을 볼 때 북한이탈주민 발음의 징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탈주민(혀끝-치조음)



표준어(혓몸-경구개음)

그림 3. /시, 씨/를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

(4) 자음 /ㅇ(ng)/

북한이탈주민들은 모음이 후행하는 어중 종성 위치에서 연구개 비음 /ㅇ(ng)/이 중복되어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이현복, 2000). 따라서 그러한 중복 현상이 없는 표준 발음과는 차이를 보인다. /병원/을 [병ㅇ웁]으로, /영어/를 [영ㅇ어]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5) 자음 /ㅈ, ㅉ, ㅊ/

경구개 파찰음 /ㅈ, ㅉ, ㅊ/가 표준어에서 보다 조음점이 전진하여 치조 파찰음 [ts, dz]에 가깝게 소리 나는 경우가 있다(이현복, 2000). 즉 표준 발음에서는 경구개음으로 조음되는 데 비해서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조음점이 더 앞으로 나가서 치조나 치조 가까이서 발음한다.

2.2. 운율

(1) 음 높이 : 성조와 큰 음폭(pitch range)

대다수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방언인 함경도 말(동북, 육진 방언)은 모든 형태소와 단어가 고유의 성조형을 갖고 있는 성조 방언이다. 표준어에서는 단어를 말할 때 음절 수에 따라 일정한 높낮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모 방언의 성조형대로 말하게 되면 이질적으로 들린다. 문장에서도 성조가 억양과 결합해 실현되면서 함경도 말은 표준어보다 고저의 편차가 큰 억양으로 지각된다.

표 1. 함경도 말에서의 성조형(단어 억양) 굵은 글씨로 된 음절이 높음

음절 수	함경도 말
2 음절 단어	구름
	바람
3 음절 단어	고양이
	사나이
	개구리
4 음절 단어	겨드랑이
	동그라미
	두드러기
	비렁뱅이

(2) 발화 속도

함경도 말은 문화어나 표준말에 비해 말속도가 무척 빠른 편이다. 북한의 한 실험음성학 연구는 함경도 말이 문화어에 비해 1.5배 빨랐다고 보고한다(고도홍 편, 1998). 일반적으로 빠른 말속도는 청자 편에서 단위 시간당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을 늘일 뿐 아니라, 단어 생략, 음운 축약 현상이 일어나기 쉬워 정확한 의사 전달에도 방해 요소가 된다. 더구나 표준 발음과 다른 자모음 음가, 북한이탈주민의 방언 억양 패턴과 결합될 때 의사 소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3) 말토막 억양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 개의 말토막으로 나눠서 발음한다. 이 때 말토막에는 일정한 억양이 실리게 되는데 이것을 ‘말토막 억양’이라고 한다. 표준어에서는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 보통 첫 번째 말토막은 ‘오름조’로 발음하고, 둘째 말토막은 ‘내림조’로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다.

/철수는 \학생입니다. (오름조 + 내림조)

/겨울에는 \눈이 옵니다.(오름조 + 내림조)

문장이 길어서 세 개 이상의 말토막으로 끊어 말할 때, 마지막 말토막은 내림조로 발음하고 다른 말토막은 오름조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오름조 + 오름조 + 내림조)

/내일은 /친구하고 /남산에 \갑니다.(오름조 + 오름조 + 오름조 + 내림조)

표준어의 기본적인 말토막 억양은 ‘저고저고’의 억양이다. 말토막이 거센 소리(/ㅍ, ㅌ, ㄷ, ㅋ/), 된소리(/ㅃ, ㅆ, ㅈ, ㅊ/), 마찰음(/ㅅ, ㅆ, ㅎ/)으로 시작할 때는 ‘고고저고’의 억양이 나타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구어에는 ‘고저저저’(HLLL), ‘저저고저’(LLHL)의 말토막 억양이 빈번하게 나타나 표준어 억양과 차이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 \어떻게

표준어 :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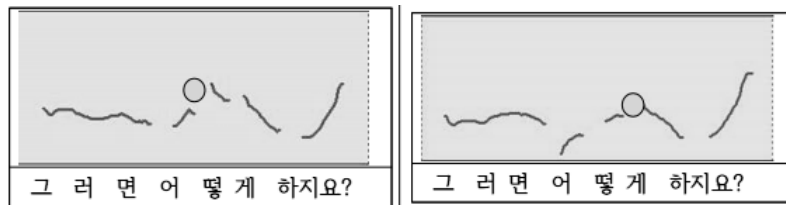


그림 4. ‘어떻게’의 말토막 억양

(4) 문장 억양

표준어에서는 보통 낮내림조(문장의 끝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억양, 교재에서 ‘^’로 표시함)로 실현되는 평서문이나 청유문, 명령문의 문미 억양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마지막 음절에서 음높이를 급격히 떨어뜨리며 끝맺음으로써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 관찰되었다 (이호영 외, 2009).

북한이탈주민 : 죄송해요

표준어 : 죄송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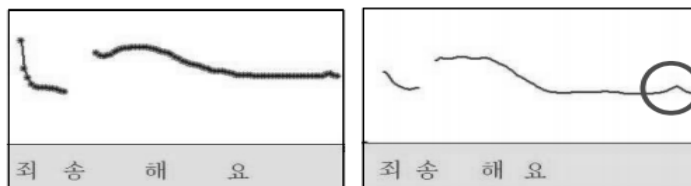


그림 5. ‘죄송해요’의 문장 억양

의문문 문미 억양에서도 단순한 질문 또는 되묻는 질문임에도 낮은 수평조 또는 낮내림조로 문미 억양을 실현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방적인 질문으로 들리게 하거나 통명스러운 인상을 주는 경우가 관찰되었다(김태희, 2010).

2.3. 화행

남한인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문금현 외, 2006; 전정미, 2010ㄱ, 2010ㄴ, 2010ㄷ).

거절 표현으로는 상대가 기분 나빠 하지 않게 최대한 배려하면서 거절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으며, 선후배나 친구 등 관계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거절 표현을 씌으로써 관계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화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거절 표현에 대한 설문 조사(전정미, 2010ㄱ)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사용하는 거절 표현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으며 직접적인 거절방식을 취하는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는 간접적으로 거절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남한의 간접적인 거절 표현에 대해 ‘안다’는 응답(60%)이 ‘모른다’는 응답(30%)에 비해 높았지만 실제로 남한식 간접적 거절 표현을 사용한 경험은 ‘없다’(84%)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주로 변명하는 방법을 택하는 남한 사람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우선은 들어주겠다’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거절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런 표현 방식은 남한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칭찬 표현의 경우, 칭찬 받고 칭찬하는 것을 어색해 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칭찬을 부담스러워하고 칭찬을 받은 경우에 이에 어떻게 응대해야 할 지 난처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칭찬 표현에 대한 설문 조사(전정미, 2010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칭찬하는 말이나 상황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칭찬하는 방법에 있어 북한에서는 칭찬의 말만 하는데 비해서 남한에서는 많은 표현을 섞어가면서 칭찬하는 것이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는 칭찬은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격려의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특히 윗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칭찬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과 표현의 경우 ‘미안하다’나 ‘죄송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는 대답만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신뢰도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사과 표현에 대한 설문 조사(전정미, 2010ㄷ)에서 남한 사람들은 사과 화행 시 잘못의 원인과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직접적이며 단순한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이탈주민은 사과를 하는 것이 자신의 체면이 상하는 행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에서는 큰 잘못이 아니면 사과를 잘 안 한다고 응답하여 작은 실수에도 사과를 잘하는 남한 화자에 비해 사과 화행을 수행하는 빈도가 낮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감사 표현의 경우 북한 사람들은 감사에 대한 표현력이 부족해서 감사한 마음은 있으나 표현을 잘 안 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남한에서는 감사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 같다,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못해 웃기만 했더니 사람들과 점차 멀어졌다, 남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감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 같다’등의 경험들을 얘기한다.

요청 표현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 부탁할 때 명령 투의 직접 화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동시에 예들려서 말하는 남한의 간접적 요청에 대해 정작 초기 혼란과 부정적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요청 화행은 특히 회사와 같은 공적 상황에서 위계가 명확한 경우 남한 화자에 비해 직접적 명령투를 사용하는 경향이 더 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상황에 따라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지 인지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으며, 인식 후에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 자주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3. 교재 개발 방향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 적응 시 언어 문제, 특히 표준어 구사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구체적인 일상 담화 상황을 전제로 한 표준 구어 학습용 교재가 필요하다. 이에 본 교재는 표준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구사하고 싶어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남북한 화행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식 대화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표준 발음과 억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서책형 교재와 음성 녹음 자료인 CD로 구성되어 있다. CD를 함께 개발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쉽게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교재 구성

4.1. 전체 단원의 구성

교재는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교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18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위 교재에 나오는 ‘개념어, 기호, 색상, 크기, 숫자’ 단원 대신에 화행에 필요한 ‘언어 예절’ 단원을 신설하였으며, ‘화장품’, ‘미용실’ 단원을 한 단원으로 묶고, ‘화법 정리’ 단원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각 단원은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여가’ 단원과 ‘화법 정리’ 단원을 제외). 두 개의 소단원은 본문 대화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을 보이는 화행 표현과 억양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소단원은 발음 및 억양의 이론과 실제로 구성하였다.

1. 관공서..... 1
 - (1) 주민 센터에서 서류 발급 받기
 - (2) 우체국에서 우편물 보내기
 - (3) ‘으’와 ‘우’의 발음 : 그럼 다음에 만날까요?
2. 교육..... 18
 - (1)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면담하기
 - (2) 교육기관 직원과 상담하기
 - (3) ‘어’와 ‘오’의 발음 : 오늘 날씨가 어떨까요?
3. 금융..... 40
 - (1) 은행 통장 만들기
 - (2) 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 (3) ‘그’와 ‘게’의 발음 : 그런데 오늘 가는 게 아닌가요?
4. 사회..... 49
 - (1) 정치에 대해 의견 나누기
 - (2) 법률 지키기
 - (3) ‘어, 여’와 ‘에’의 발음 : 며칠만 보고 돌려주세요.
5. 의료..... 62
 - (1) 병원에서 진료 받기
 - (2) 병문안하기
 - (3) ‘하’와 ‘해’의 발음 : 제가 탈북한 해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6. 직장..... 79
 - (1)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하기
 - (2)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하기
 - (3) ‘위’와 ‘와’, ‘와’와 ‘아’의 발음 : 이 과자 좀 바꿔주세요.
7. 교통..... 99
 - (1) 길 묻기
 - (2) 교통사고에 대처하기
 - (3) ‘노’와 ‘로’의 발음 : 한 번 이용하는데 얼마지요?

8. 통신..... 115
 - (1) 광고전화 받기
 - (2)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문의하기
 - (3) ‘시’와 ‘식’의 발음 :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9. 대중매체..... 130
 - (1) 인터뷰에 응하기
 - (2) TV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기
 - (3) ‘치’와 ‘티’의 발음 : 오늘로 교육도 끝이 나네요.
10. 여가..... 144
 - (1) 여가 생활 즐기기
 - (2) ‘ㄴ’과 ‘ㄹ’첨가 발음 : 월요일에 같이 식사하러 갈래요?
11. 인간관계..... 156
 - (1)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하기1
 - (2)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하기2
 - (3) 자음 탈락 발음 : 처음엔 많이 못 알아들었어요.
12. 언어예절..... 174
 - (1) 언어예절에 맞게 대화하기
 - (2) 언어예절에 맞게 통화하기
 - (3) 축약 발음 : 요즘은 괜찮아졌습니다.
13. 의류..... 193
 - (1) 옷 가게에서 점원과 대화하기
 - (2) 옷 구입에 필요한 정보 알기
 - (3) 어휘 억양
14. 음식..... 212
 - (1) 식당에서 주문하기
 - (2) 음식 배달시키기
 - (3) 말토막 억양
15. 주거..... 226
 - (1)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기
 - (2) 가족과 대화 나누기
 - (3) 부정어 강조

16. 쇼핑····· 240
- (1) 물건 사기
 - (2) 환불 받기
 - (3) 문장 억양
17. 미용····· 256
- (1) 화장품 사기
 - (2) 미용실에서 머리하기
 - (3) 끊어 말하기
18. 화법 정리····· 275
- (1)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말하기
 - (2) 간접적으로 말하기

‘발음과 억양’ 소단원 17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발음·억양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항목들은 선행 연구 검토, 방송⁴⁾에 출연한 북한이탈주민의 발화 분석 등을 통해 추출한 것이며, 표에 제시한 해당 표현과 운율 특징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발화에서 가져왔다.

표 2. ‘발음과 억양’ 소단원 17개의 항목

단원	항목	해당 표현 또는 운율 특징
1	으>우	마을, 쿤뜻
2	어>오	온어가 달라서, 종신 없이, 고을 앞, 풍양, 올마나
	오>어	겨회, 거중(고증), 공부(공부), 어직(오직)
3	그>기	기리니까, 기러문, 긴데, 긴까
	게>기	간다는 기, 물어본다는 기
4	‘이’ 역행동화	미길라 하든, 얼매예요, 색깔 맥이다
	여>애	부르 캐고, 써 부 두, 돌래 주고, 갠디질 못하더라구요 매칠, 갠비, 갠심, 갠디질 못하더라구요, 체네, 뵤화
5	하>해	탈북한 해는, -한 것 같습니다, 어디메 해라는
6	모음조화	배와줘서, 보름을 못 채왔는데, 바빠주는, 감चा야, 낮차 주시오, 채아줄 거라고
	단모음화	인간간게, 가자(과자), 간심(관심), 무지컬

4)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방송 ‘반갑습네다’(CGNTV) 총 40회분을 분석하여 빈도 높게 나타난 발음/억양 특성을 추출하였다.

- 표현 연습

표현 연습에서는 본문 대화에서 익혀야 할 화행 표현을 중심으로 유사하고 다양한 표현을 제시하여 실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익히도록 구성하였다.

- 대화 연습

‘대화 연습’에서는 여러 화행을 대화 속에서 응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고 : ‘표현 연습’과 ‘대화 연습’ 부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필요한 배경지식 및 정보를 ‘알아봅시다!’의 박스 안에 추가 제공하였다.)

- 이럴 때 이런 표현

주제와 관련된 세부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을 묶어 제시함으로써, 필요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습 문제

‘연습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부정 발문(‘~가 아닌 것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긍정 발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였다.

- 쉬어 가기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와 ‘남한의 문화 나누기’로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는 먼저 온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새로 남한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의 적응을 돕고자 한 것이며, ‘남한의 문화 나누기’는 문화적 배경지식을 알고 싶어하는 학습자의 요구와 국어를 온전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국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맥락 안에서의 언어 사용을 알아야 함을 고려한 것이다.

4.3. 소단원(발음과 억양) 구성

각 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은 ‘발음과 억양’을 다루는 단원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알기 쉽게 표준 발음과 억양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반복 연습하면서 익혀 갈 수 있도록 ‘녹음된 문장을 듣고 표준 발음/억양이 아닌 것 찾기’, ‘소리의 차이를 듣고 구별하기’, ‘표준 발음과 억양으로 고쳐 말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시켰다.

교재의 ‘발음/억양’ 소단원은 국어원 온라인 강의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과 연계해 학습할 수 있다. 아래 표에 서로 관련되는 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3. ‘발음/억양’ 소단원과 ‘국어원 온라인 강의’와의 연계

단원	‘발음/억양’ 소단원 항목	국어원 온라인 강의 ⁵⁾ 항목
1	으/우의 발음	꿀? 꿀?
2	어/오의 발음	언 감자? 온 감자?
3	그/게의 발음	
4	‘어,여’와 ‘에’의 발음	
5	‘하’와 ‘해’의 발음	
6	‘워’와 ‘와’, ‘와’와 ‘아’의 발음	
7	‘노’와 ‘로’의 발음	락성대? 낙성대?
8	‘시’와 ‘식’의 발음	시장? 식당?
9	‘치’와 ‘티’의 발음	마디? 마지?
10	‘ㄴ’과 ‘ㄹ’ 첨가 발음	소립? 슬립?
11	자음탈락 발음	
12	축약 발음	
13	어휘 억양	단어의 억양
14	말토막 억양	문장의 억양
15	부정어 강조	
16	문장 억양	문장의 억양
17	끊어 말하기	



그림 7. 국립국어원 온라인 강의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5) <http://korean.go.kr> → (왼쪽 하단) 온라인 강의 → 새터민 발음교육

5. 교재 활용법 및 고려 사항

(1)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할 때 교육 자체가 표준어 동화 압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한에서 지역 방언들은 표준어보다 사회적 위세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방언은 다른 남한 방언보다도 낮은 위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현실적인 언중의 언어 의식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의사소통의 필요에서 서울이라는 한 지역 방언이 표준어로 제정되었음을 설명하면서 표준어와 방언 간에 상대적인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도록 한다. 표준어 교육이 표준어 대체 교육으로 잘못 받아들여져서 북한 방언에 대한 편견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개인별 발음·억양 평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출신 지역이나 개인별로 발음과 억양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 발음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출신 방언권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같은 방언권 내에서도 개인별 변이가 존재한다. 억양 면에서는 성조 방언권인 동북 방언, 육진 방언 화자들이 비성조 방언권인 서북 방언 화자들보다 표준 억양 습득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무조건 발음·억양 소단원을 차례대로 진행하기보다 개인별로 발음과 억양 평가 시간을 먼저 갖고 자신이 어떤 부분을 교정해야 하는 지 짚어주는 것이 좋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47-1, 2(서울대 언어교육원, 2009)의 발음, 억양 평가지가 있다. 그러나 읽기 과제와 자유 발화에서 발음·억양 특성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기소개를 하게 한다든가, 집에서 발화를 녹음해 오게 한다든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 평상 시 자연스런 발음·억양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3) 자신의 현재 발음·억양(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 사용)에 대한 인식을 도와준다.

처음에는 자신의 현재 발음에 대한 인식이 어려우므로 여러 기법들을 사용해 도움을 준다. 녹음해 표준 발음과 비교하기, 거울로 입 모양 보여주기, 설압자로 혀 위치 지적해 주기 등의 방법이 있다. /시, 씨/와 /즈, ㅈ, ㅊ/의 경우, 청각만으로는 소리의 변별이 어려운 학습자들에게는 설압자를 이용해 직접 조음점(혀끝 또는 혀몸 부위)을 지적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음향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사용해 자신의 억양을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다양한 활동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

- 단순한 문형별 억양 연습은 지루하고 너무 쉽다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 드라마 영상 등을 활용해 억양을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병행하면 집중도와 흥미 면에서 효과적이다.
- 소그룹으로 묶어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하고 그 때의 발화를 녹음한 후 서로의 발음과 억양에 대해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도록 하는 일반화 활동도 효과적이다.
- 가게 주인과 점원 등 각자의 역할을 주고 그에 맞는 대화를 스스로 구성하도록 하는 역할 놀이도 사용할 수 있다.

(5) 시작 단계와 교육 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자신의 현재 말이 어떤 상태인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스스로 서울말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녹음한 자신의 말을 듣고 충격 받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자신의 말을 녹음해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동기 부여 방법이다.

수십 년 몸에 배인 고향 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식적 노력 없이도 표준 발음과 억양으로 자연스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지속성을 위해 표준어 구사로 인한 유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다. 표준어를 써서 동료나 주변 사람에게 전화해 보기, 가게에서 주문해 보기 등 의사소통 활동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해 보게 한다. 시작 단계의 발화 녹음을 들려주고 교육 후 어떤 면에서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며 동기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6) 동기 수준에 따라 교육 목표와 내용을 차별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어휘 학습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받아들이는데 반해, 발음·억양 교육에 대해서는 개인 간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응,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 발음·억양 교육 참여자와 단독 발음·억양 교육 참여자는 동기 면에서 상이하다. 두 부류의 대상에 따른 교육 목표와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하나센터 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발음·억양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함을 이해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동기 부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교육 내용도 의사소통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발음과 주의해야 할 억양 패턴 중심으로 진행한다.

반면 발음·억양 교육 단독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이미 남한 사회에서 방언 사용 시 주목을 받거나 불이익,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또는 그런 대우를 우려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방언을 교정해 가급적 표준어에 가까운 발음·억양을 구사하기 원한다. 발음·억양 교육에 대한 동기와 기대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미 스스로 교정하려고 노력해온 경우도 많으며, 정확한 목표와 방법을 알기 위해 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첫 번째 대상자들과 달리 동기 부여의 필요성은 적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기대만큼 완벽한 수준의 교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한두 번 교육으로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의사소통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발음 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징표가 될 수 있는 다른 발음과 음운 규칙도 함께 다룬다. 주의해야 할 억양 패턴 외에도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억양 연습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동기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개인별 발음, 운율 평가를 통해 개인별 목표를 자세히 설정하고 개인별 연습 과제와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7) 직설적인 표현이나 북한식 표현으로 인해 갈등을 빚거나 오해받았던 사례들을 서로 나누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한다.

어휘나 발음·억양과 달리 화행 표현에 대해서는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언가 다르다는 점은 어렵듯이 알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에서도 1년에서 1년 반 가량 지나서야 그 차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언급이 있다. 따라서 먼저 자신들이 경험한 관련 사례들, 남북 화행의 차이를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돕는 것이 좋다. 교육 동기 부여에도 효과적이다.

(8) 남북의 화행 차이를 가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서로가 그런 표현을 선호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의 완곡한 거절이나 간접적인 요청 등을 이중적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 자신들의 표현이 진솔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한에서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선호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려줌으로써 남한식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덜 수가 있다. 남한의 감정 규범에서는 감정의 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민감하여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정향진, 2005) 이런 경향이 완곡한 거절, 간접 화행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상대방의 시간, 공간, 의사 결정권 등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남한의 대인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요청할 때는 가급적 상대의 의사, 가능성을 묻는 방식이 더 예의바르게 인식되는 것이다.

(9) 학습한 화행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고 그 반응을 관찰해 보도록 의사소통 활동 과제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좋다.

남한식 화행 표현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웬지 어색하여 자신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다. 매일 두 사람씩 칭찬해 보기 등 의사소통 활동 과제를 통하여 학습 표현들을 반복하여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도록 유도한다. 그 때의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반응을 관찰, 보고하도록 하면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교재〉는 제목 그대로 이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제작되었다. 각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남한 내 사회적 환경에 따라 표준발음과 화법이 갖는 유용성/가치는 서로 다르다. 남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그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교육수준, 관계망 등에 따라 표준발음과 화법의 유용성을 다르게 인식한다. 기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충분한 집단이 있는가하면 업무 수행에 표준어 능력이 중요한 집단도 있는 것이다. 각자의 필요에 맞게 이 교재를 북한이탈주민들 혼자 자습할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발음과 억양을 본보여주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주는 선생님이요, 대화 연습 상대로, 때로는 엄격한 평가자로 끊임없이 격려하며 지켜봐주는 이웃들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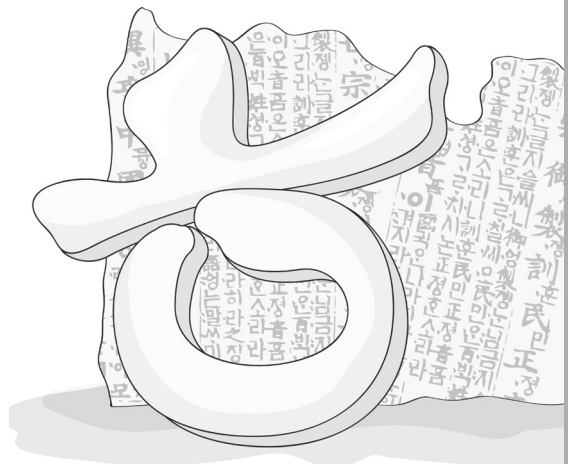
- 강순경(1996), 「남북한의 모음 분석」, 『어학연구』 32(1), 서울대 어학연구소, pp.1-18.
- 강순경(1997),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 『어학연구』 33(1), 서울대 어학연구소, pp.117-136.
- 강진철(1994), 「함경도 방언 억양에서의 말소리 느낌에 대하여」, 고도홍 편(1998). 『북한의 음성학 연구』. 한국문화사.
- 강현석(2010), 「충남 지역 화자들의 방언 구획, 방언 태도 및 인지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18-2, pp.249-286.
- 곽충구(1998), 「동북, 서북 방언」, 『문법 연구와 자료 : 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pp.985-1028, 태학사.
- 곽충구(2003),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그 변화의 방향」, 『국어학』 41, pp.59-91.
- 김태희(2010), 「시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담화상황에서의 언어중재가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이홍식·김경령(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문금현·이홍식·김경령(2006), 『새터민 언어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배준영(2011), 「대구지역 새터민의 언어 적응 양상 연구-음운을 중심으로」, 경북대 국문과 석사학위논문.
- 서은영(2012), 「북한이탈주민의 조음음운특성 및 조음중재효과에 대한 예비 연구」, 나사렛대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선·권순희·강보선·양수경·정성훈·정호성·남건우(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박이정.
- 양수경(2013),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주행(2002), 「한국어의 발음 교육 방법」, 『이중언어학』 20, pp.259-281.
- 이현복(2002), 「남북한 언어의 발음차이에 관하여」, 『교육한글』 13.
- 이호영(1997), 『국어운율론』, 한국연구원.
- 이호영·박성현·정인호(2009),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보고서
- 전정미(2010ㄱ),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우리말 글』 49, pp.111-138.
- 전정미(2010ㄴ),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사용 양상 연구-칭찬 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7, pp.245-272.

- 전정미(2010), 「북한이탈주민의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조사」, 『겨레어문학』 45, pp.235-260.
- 전학석(1998),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정경일(200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 정명숙(200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전략적 발음 교육」, 『한국어학』 38, pp.345-369.
- 정용호(1988), 「함경도 방언의 속도에서 나타나는 특성」, 고도홍 편(1998), 『북한의 음성학 연구』, 한국문화사.
- 정은혜(2011), 「현대 육진 방언 자모음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정향진(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조정아·임순희·정진경(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차재은(2005), 「경상 방언 화자를 위한 국어 발음 교육 시안」,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화회.
- 최명옥(1998),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의 대조 연구」, 『한국어 방언 연구의 실제』, pp.467-516, 태학사.
- 한진건(2000), 『륙진방언 연구』, 역락.



북한이탈주민의 표준어 어휘 사용 양상과 외래어 익히기

이 기 연 | 서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의 표준어 어휘 사용 양상과 외래어 익히기

이 기 연 | 서울대학교



1. 들어가며

- ‘단어’를 가르친다는 어려움 인식 : 예민한 문제, 수적 한계, 교육 대상 수준의 다양성¹⁾
- 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고려해야 : 외래어도 가르쳐야 함.(외래어, 외국어)
- 자신감 있는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²⁾
- 남한어를 ‘강요’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 ‘새터민’, ‘탈북자’같은 표현은 지양,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 정도의 표현으로 사용
- 북한 이탈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성격 :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님 (신명선·권순희, 2011)

2. 교육용 어휘의 선정 방법(강보선, 2013 참조)

- 남북에서 형태가 다른 어휘 : 남북의 독자적인 순화 사업³⁾과 표기법 차이 때문
 - * 도시락(곽밥), 에어컨(랭풍기)
 - * 여자(녀자), 버스(빠스), 낱짜(날자), 킬로그램(키로그렘), 라디오(라지오)
- 남북에서 의미가 다른 어휘 : 개념적 의미뿐 아니라 연상적 의미 등도 다를 수 있다.
- 남북에서 사용이 다른 어휘

1) 성, 연령, 출신 지역, 학력, 직업, 남한 정착 기간 등에 따라 남한 어휘에 대한 지식 정도가 다르며 어휘 교유의 필요성도 다름. 하나의 동질 집단으로 간주하여 어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강보선, 2013 : 130)

2) 북한 이탈주민이 말하기와 듣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말하기의 경우 생소한 단어가 29.4%, 듣기의 경우 생소한 단어가 33.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정경일, 2001)

3) 표기법 중에는 두음법칙, 사이시옷표기, 외래어 표기법 등이 남북 어휘의 형태 차이에 영향을 크게 미침.

* 사용 범위가 다른 범위 : 머리(남한에서는 사람에만, 북한에서는 사람 동물 모두)

* 사용 빈도가 다른 어휘 : 끝물, 싸다(남한) -막물, 눅다(북한)

- 남한에서만 사용되는 어휘

* 북한에도 동일한 개념을 지닌 어휘가 존재하지만 남북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한 어휘

* 북한에도 동일한 개념을 지닌 어휘가 존재하고, 그 형태도 남한과 동일하거나 유사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도 접해 보지 못한 어휘

* 북한에는 해당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생소한 단어 :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퀵서비스, 재수생, 대리운전, 웨딩플래너 등.

■ 교육용 어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어휘 교육의 목표, 성격, 대상에 맞출 것

☆ 남한의 사용 빈도

☆ 의사소통 장애의 정도

☆ 학습의 난이도

3. 표준어 익히기

🌿 남한 어휘의 특징

- ㉠ 남한말이 북한말에 비해 한자어와 외래어가 많음
손기척-노크, 기다림칸-대기실
- ㉡ 분단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 많음
맛벌이, 주말 농장, 환경미화원, 오피스텔, 편의점
- ㉢ 북한과 표기가 다른 말이 많음
로동-노동, 녀자-여자, 색깔-색깔, 초불-촛불

🌿 남북한 의미나 쓰임새가 다른 말

1) 남한에서는 이런 뜻으로는 안 쓰여요.

남말	북한에서만 쓰이는 뜻	바꿔 쓸 수 있는 남한말
기울다	병이 심해지다.	악화되다.
긴장하다	일정이 여유가 없다.	빡빡하다, 빠듯하다.
깨우다	사진을 뽑다	현상하다, 인화하다.

날말	북한에서만 쓰이는 뜻	바꿔 쓸 수 있는 남한말
끼다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보살피고 도와주고 가르쳐준다.	보살피다 (남한에서 '끼다'는 다소 부정적 의미)
도르래	날개를 달아서 바람에 빙빙 돌아가게 만든 물건	바람개비
	롤러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 인라인 스케이트)
바람	뱃속에 생긴 기체	가스 ⁴⁾ (Ex : 배에 가스가 찼다)
바쁘다	경제적으로 힘이 부치고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
방조하다	도와준다.	도와준다. (남한에서 '방조하다'는 범죄를 돕는 행위)
사귀다	서로 엇갈리어 지나가다.	교차하다. 지나치다. 엇갈리다.
사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	중대한 사건 (남한에서 사변은 전쟁 같은 크고 나쁜 일)
손잡아	운전대	핸들
잡다	손으로 반죽을 뜯어 떡, 전, 수제비 따위를 만들다.	만들다.
초보	(어떤 지식이나 기술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것	기초

2) 글자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북한에서의 뜻	날말	남한에서의 뜻
거저 얻다, 공짜로 얻다	건저먹다	국물에서 건더기를 집어 먹다.
증명이나 확인을 위하여 도장 대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정한 표시를 함. 남한 말로는 '서명', '사인'	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일종의 지폐)
음식이 쉰 듯하다, 기분이 불쾌하다.	쉬쉬하다	남이 알까 두려워 숨기다.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다.	썩다	몸이나 얼굴에 바람이나 김을 맞다.
짐승의 어미	엄지	가장 굵은(첫 번째) 손가락
마음에 틀어지거나 껴이다.	외지다	외따로 떨어져 있어 으스스하고 후미지다.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맹랑하다	하는짓이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깜찍하고 뽀뽀하다.

4) 남한에서는 '방귀'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가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가스를 분출했다', '가스 냄새가 심하다' 등.

3) 전혀 다른 뜻인데,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어요.

뜻	북한말	남한말	뜻
자주 있다.	드문하다	드물다 뜨문뜨문하다	흔하지 않다. 자주 있지 않다.
키나 목이 짧지 아니하고 시원스럽게 길다.	설렁하다	썰렁하다	서늘한 기운이 있어 조금 추운 듯하다.
카깝고 살뜰하다.	찹찹하다	착착하다	마음이 어수선하다/마음이 (불편하게) 복잡하다.
(아이가) 똥똥하다.	꿀꿀하다	꿀꿀하다	마음이 우울하다.
대충하다, 얼버무리다, 넘어가다.	굵때다	굵뜨다	(하는 행동 등이) 매우 느리다.

4) 비슷한 의미인데 쓰임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이런 경우가 민감한 부분)

날말	뜻	남북한 차이
굽다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북한에서는 윗어른에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남한에서는 윗어른에게도 자주 사용함.
다치다	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다.	북한에서는 '만지다', '건드리다'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나 남한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음.
소행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	남한에서는 '소행'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함.
욕하다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다.	북한에서는 '욕하다'를 '야단맞다'는 의미로도 사용함.
일없다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북한에서 '일 없다'는 남한의 '괜찮다' 같은 사양의 의미로 사용됨.
어르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일 때 이르는 말	북한에서는 '늙은이, 노인'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나 남한에서 '늙은이', '노인네'는 비하의 의미가 있음.
당신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너'라는 말보다 조금 높여서 쓸 수 있는 말	북한에서는 '당신'이 상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남한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이 중립적임.
-질	그런 일 또는 그런 행위의 뜻을 더하는 말 (선생질, 장사질)	북한에서는 '일정한 직업이나 노릇'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나 남한에서는 '-질'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져서 보통 일에는 잘 붙이지 않음. (주로 도둑질, 강도질..)

🌿 호칭어와 지칭어

- 직함이 없는 동료끼리 : 남녀 상관 없이 이름 뒤에 ‘-씨’를 붙이거나 (혜교 씨, 동건씨) 성과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부르면 된다(송혜교 씨, 장동건 씨). 이름을 바로 부르는 것(혜교야, 동건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직함이 있는 동료 : 남녀 관계 없이 직함을 이용하여 부르면 된다(장 대리, 장동건 대리, 장 대리님, 장동건 대리님)
 - 직함이 없는 선배 : 성이나 이름에 ‘선배’ 혹은 ‘선배님’을 붙여서 부른다(선배님, 장 선배님, 장동건 선배님)
 - 직함이 없는 후배 : 성과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부르면 된다.(송혜교 씨) 친밀한 관계거나 동성끼리는 이름에 ‘씨’를 붙여도 된다(혜교 씨)
 - 남한에서는 직함에 ‘님’을 붙이면 모두 높여주는 말이 된다.(선생-선생님, 주부-주부님. 감독-감독님)
 - 간혹 온라인 상(인터넷)에서 상대방을 너 또는 당신이라고 지칭하는 대신 ‘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 ※ 북한에서 ‘동지’를 붙여 부르는 사람에게 남한에서는 ‘님’을 붙여 부르면 되고, 북한에서 ‘동무’를 붙여 부르는 사람에게는 ‘님’으로 바꾸어 부르거나 직함만으로 부르면 된다.
- 식당 등 영업소의 종업원을 부를 경우 남자 종업원은 ‘아저씨’, ‘젊은이’, ‘총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자 종업원은 ‘아주머니, 아가씨’ 등으로 부른다. 비공식적으로 성인 여성에게 ‘이모’나 ‘언니(다소 젊은 여성)’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요’ 정도로 불려도 무방하다. ‘어이’, ‘이봐’는 부정적인 단어이므로 안 쓰는 게 좋다.
 -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선생님’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되고, 여자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자인 경우 ‘할머니’, ‘아주머니/아주머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젊게 부를수록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 학생, 아가씨, 총각, 사모님 등도 자주 쓰이는 호칭어.

🌿 서로 다른 표현법(이은말의 경우)

-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기분이 없다.(북) 선생님께 꾸중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남)
- 공부를 많이 해서 골이 아픕니다.(북) 머리가 아픕니다.(남)⁵⁾

- 심장이 안 좋아서 숨쉬기가 바쁩니다.(북) 숨쉬기가 어렵습니다.(남)
- 이번에 우리 팀이 상을 받게 되어서 사기가 났다.(북) 사기가 높다.(남)
- 억이 막혀서 말을 못하겠다.(북)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다.(남)
-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 치고 있습니다.(북) 전화 걸고 있습니다.(남)
- 언제까지 숙제를 바쳐야 합니까?(북) 숙제를 제출해야/내야 합니까?(남)⁶⁾
- 북한에서 이런 말을 세게 씁니다.(북) 자주(많이) 씁니다.(남)
- 그렇게 말했는데도 받아먹지 못하네.(북) 이해하지 못하네.(남)

4. 외래어 익히기

- 남한에서도 외래어와 외국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 :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남한의 언어가 잡탕말이 되었다, 오염이 되었다 등의 감정을 느껴 남한 어휘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의류·잡화

■ 단어 형태가 달라요.

남한어	북한어	남한어	북한어
나시(민소매), 슬리브리스	스프링	원피스	달린옷, 달린치마
니트	뜨게옷	롱스커트	긴 스커트, 바야스
드레스	나리옷	미니스커트	동강치마, 짧은 치마*
스웨터	세타, 뜨게옷	패딩	누빈 옷
와이셔츠	샤썸	웨딩드레스	첫날옷, 결혼식, 예복*
유니폼	단체복*	브래지어/브라	가슴띠
정장, 수트	양복*	팬티	뽀썸
추리닝(츄리닝), 트레이닝복	단복	사각팬티, 트렁크	사각뽀썸, 마대뽀썸
캐주얼	평상복*, 일상복*	스타킹	살양말, 유리양말
목 폴라/폴라/폴라티	도꾸리	슬립	속치마*
카디건	자켓트	앵클부츠	발목구두, 목구두
드라이클리닝	화학빨래	하이힐/힐	뽀족구두*
세탁소	세탁소, 빨래집	라벨	꼬리표*

5) 남한에서도 '골이 아프다'는 표현을 쓰는데, 공부를 많이 했을 경우보다는 걱정거리가 많거나 고민을 많이 할 때 '골아프다', '골이 아프다'라고 씀.

6) 남한에서는 높은 사람에게 물건을 드릴 때 보통 '바친다'는 단어를 사용함.(신, 왕)

남한어	북한어	남한어	북한어
굽	굽, 뒤축*	벨트	혁띠*
롱부츠	왈렌끼	선글라스	색안경*
액세서리	치레걸이, 장식품*	신발사이즈(치수)	신발 문수
스카프	목수건, 마후라	백, 핸드백	가방*

■ 남한에만 있어요.

웨딩드레스, 타이즈, 비키니, 스관, 판타롱스타킹, 밴드스타킹, 레깅스, 후드티(후디), 고어텍스 드라이, 단화, 스니커즈, 키높이 신발, 컴퓨터 클리닝, 야구모자, 캡, 넥타이, 핏(fit)

■ 단어 뜻이 달라요

재킷	북한의 “자켓트”는 남한의 ‘카디건(가디건)’이나 ‘점퍼’와 같음
바바리	북한의 ‘코트’에 해당하는 얇은 모직 코트
외투	남한에서 외투는 겹옷을 말함. 북한에서는 봄, 가을에 입는 옷은 코트, 겨울에 입는 옷은 ‘외투’라고 함.
오바	북한의 ‘동복’에 해당하는 것으로 겨울 외투를 통틀어 말함.
실내화	북한에서 실내화는 일반적으로 슬리퍼를 지칭, 남한에서 실내화는 실내에서 신는 모든 신발을 말한다.

🌿 음식점

- 호프/펍 : 한 잔씩 잔에 담아 파는 생맥주, 생맥주를 파는 맥줏집
- 서빙 :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음식을 나르며 손님의 시중을 드는 일(북 : 접대)
- 리필 : 구입한 음료를 다 마시고 나서 다시 무료로 음료를 채워 마시는 것
- 냅킨 : 음식을 먹을 때 무릎 위에 놓고 손이나 입을 닦는 데 쓰는 천이나 종이
- 나이프 : 양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작은 칼
- 셀프 : 음식점에서 셀프는 자기가 직접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것.(물은 셀프입니다.)
- 카운터/CASHIER : 식당이나 상점에서 돈을 계산하는 곳.
- 더치페이 :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
- 캔 : 양철 따위로 만든 통으로 그 안에 음식물을 담은 제품, 깡통
- 티 : 차, 특히 홍차를 이르는 말
- 페트병 : 음료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 병

■ 단어 형태가 달라요.

남한어	북한어	남한어	북한어
한식집	조선식 식당	*인분	*명
치킨	닭고기 튀김*	도넛	가락지빵
커피숍, 카페	찻집*, 다방*, 다점	서빙	접대

■ 남한에만 있어요.

레스토랑(퀴진), 분식집, 일식집, 중국집, 제과점(베이커리), 커피믹스, 돈까스, 리필, 시럽, 라볶이, 스파게티, 파스타, 스테이크, 블랙 커피, 샐러드, 짬뽕, 덮밥, 생크림, 쫄면, 셀프, 케이크, 쿠키, 피자, 초밥, 디저트, 테이크아웃, 투고, 햄버거, 개인접시(앞접시), 더치페이, 인스턴트, 요플레, 요거트, 마요네즈, 마가린, 티백, 스팸, 크림치즈

■ 단어 뜻이 달라요

주스	북한의 '주스'는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주로 시판되는 상품에 대해서 사용, 남한에서 '주스'는 과일이나 야채를 짜낸 즙을 의미함
호프(호프집)	북한에서 '호프'는 맥주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가리킴, 남한에서 '호프'는 생맥주를 의미함.
조미료	북한의 '조미료'는 양념의 뜻으로만 쓰임
낙지	북한에서 '오징어'가 남한에서 '낙지'이다. (북한에서는 반대)

주거

- 커피포트 : 물을 끓이는 기구
- 커피메이커 : 커피를 끓이는 기구
- 가스레인저 :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
- 오븐 : 음식을 넣고 열을 가하여 익히는 조리 기구, 생선을 굽거나 빵을 구울 수 있음
- 락앤락 : 단단히 닫을 수 있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진 그릇
- 지퍼백 : 지퍼가 달린 비닐 봉지
- 스테인레스 : 녹슬지 않는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류
- 키친타월 : 부엌에서 쓰는, 주방 도구를 닦는 데 쓰는 휴지. 일반 휴지에 비해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음
- 필터 : 러과기, 정수기 등에 들어가는 여과기.

- 비데 : 대변 후에 물로 밑을 닦아 주는 기구
- 락스 : 살균, 소독에 사용하는 제품. 주로 액체로 되어 있으며 맨 살에 닿으면 안 됨.
- 타월 : 무명실에서 보풀보풀하게 나오도록 짠 천으로 만든 수건
- 랩 : 음식 등을 보관할 때 쓰는 얇은 비닐
- 티슈, 크리넥스 : 각티슈, 뿔아 쓰는 얇은 휴지.
- 물티슈 : 물이 묻어 있는 휴지, 휴지보다 질겨 잘 찢어지지 않는다.
- 도어락 : 디지털 키, 건전지가 들어 있어 자동으로 잠기고 열리는 장치. (주로 버튼식)
- 오피스텔 : 사무실과 주거 공간이 같은 빌딩 내에 있는 주택.
- 원룸 : 하나의 공간에 침실과 거실, 주방이 있어 혼자 지내기에 적합한 주거 형태.

■ 단어 형태가 달라요.

남한어	북한어	남한어	북한어
싱크대	가시대	세제	가루비누*
랩	얇은 비닐	프라이팬	지짐판
스테인레스	스텐*, 스덴*	인터폰	구내전화*
매트리스	침대깔개, 마다라스	배터리	전지약
멀티탭	다전구꽃이	블라인드	창가림, 햇빛가리개*
싱글침대	독침대	콘센트	접속구
더블침대	쌍침대, 부부침대	에어컨	랭풍기
잭	연결고리	오디오	녹음기
		코드	전선

■ 남한에만 있어요.

오븐, 전자레인지, 커피메이커, 쿠키호일(쿠키포일), 믹서, 락앤락, 드럼세탁기, 락스, 비데, 본드, 월세, 콘도, F층, 드레스룸, LCD, 쿠션, 드럼세탁기

쇼핑

- 슈퍼 : 슈퍼마켓(북 : 상점)
- 마트 : 북한의 '상점'과 같은데 종류가 다양한 많은 생활 필수품들이 진열되며 대개 규모가 크고 할인을 해 준다. 북한의 '종합직매점', '대형직매점' 정도에 해당.
- 쇼핑몰 : 여러 개의 상점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곳. 백화점도 쇼핑몰에 해당

- 편의점 : 24시간 문을 여는 상점
- 할인몰, 대형할인몰 : 다른 곳에 비해 값이 싼 대형 상점
- 바자회 : 공공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벌이는 시장. 보통 교회나 주부 단체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싼 가격으로 팔거나 음식들을 만들어 판매.
- 매장, 숭 : 물건을 파는 가게
- 코너 : 큰 상가에서 특정한 상품을 진열하고 팔기 위한 곳. 북한의 매대와 비슷.
- 포인트 카드 : 포인트, 마일리지는 일종의 점수를 뜻함.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적립하고 이 점수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카드.
- 멤버십 카드 : 회원 카드
- 캐시백 :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 쿠폰 : 회사나 상점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해 주기 위해 제공하는 표
- 소셜커머스 :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판매 방식
- 공구, 공동구매 : 단체로 구입하는 것
- 인터넷 쇼핑 : 직접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전산상에 올려진 목록을 보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
- 원플러스원 :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행사
- 디시(DC) : 할인.
- 리콜 :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생산 기업에서 그 상품을 회수하여 점검, 교환, 수리하여 주는 것.
- 에이에스(A/S) : 물건 구매 후 이상이 있을 때 물건 구입처에서 해당 물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 히트상품 :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
- 신상 : 새로운 상품, 신상품
- 베스트 상품 : 가장 인기 있는 상품
- VAT : 세금, 부가가치세.
- 브라이이피(VIP) : 귀빈
- 카달로그 : 물건을 팔기 위해 제품 목록을 정리한 책
- 이벤트 : 큰 행사, 보통 할인 행사나 증정품 행사.

■ 단어 형태가 달라요.

남한어	북한어	남한어	북한어
디스카운트, 디시(디씨)	에누리	메이커	고급 상품
다운	떨어지다, 가격 인하	마트, 슈퍼, 슈퍼마켓	상점*
마진	리익금		

■ 남한에만 있어요.

빈티지, 세일, 히트, 원플러스원, 일시불, 소셜커머스, 상설할인매장, 벼룩시장, 바자회, 공동구매, 쇼핑몰, 온라인(상점), 오프라인(상점), 텔레마케팅, 인터넷 쇼핑, 홈쇼핑, 프랜차이즈, 마일리지, 마일리지 카드, 멤버십 카드, 쿠폰, 제휴 카드, 포인트 카드, 바가지쓰다, 카드 긁다, 환불, 할부

🌿 인간관계

- 커플 : 짝이 되는 남녀 한 쌍(북 : 한쌍, 련인)
- 커플 티, 커플 링
- 룸메이트 : 기숙사나 하숙집 등에서 방을 같이 쓰는 사람.
- 스킨십 : 연인이나 가족 간의 신체 접촉
- 에티켓 : 사교상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예절
- 프라이버시 :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 성격 관련 표현

- 마당발 : 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 마마보이 :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남자
- 맹랑하다 : 하는 짓이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툭툭하고 감쪽함
- 센스가 있다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이나 판단력이 뛰어남(북 : 총명하다, 령리하다)
- 썰렁하다 : 재미없거나 이상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 얌전하다 : 성품이나 태도가 침착하고 단정함을 나타냄
- 얌체 : 자기 잇속만 챙기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카리스마가 있다 :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따르게 하거나 하는 능력이나 자질이 있음
- 터프하다 : 성격이 거침이 없고 강함
- 유머러스하다 :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음

- 섹시하다 : 외모나 언행에 성적인 매력이 있음.
- 이미지가 좋다 : 상대에게서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
- 매너가 좋다 : 예의가 바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음
- 시크하다 : 다른 사람의 일이나 상황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음
- 쿨하다 :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뒤끝이 없음.
- 허스키하다 : 쉼 듯하여 맑지 아니한 목소리(북 : 석쉽하다. 썩썩하다)

기분을 나타내는 말

- 다운되다 : 기분이 가라앉았음을 나타내는 말
- 업되다 : 기분이 들뜨고 흥분됨을 나타내는 말

공공생활

공인인증서, 이체, 현금카드, 씨디기, 인터넷뱅킹, 홈뱅킹, 지로, 보이즈피싱, 오피스텔, 원룸, 리모델링, 풀옵션, 인테리어, 개인병원, 파스, 시티, 엠알아이, 클리닉, 라식, 인턴, 레지던트, 임플란트, 드링크제, USB, 하드, 외장하드, 프로그램, 복사, 카피

5. 마치며

- 국립국어원 누리집 활용
- 참고 가능 도서 : 북한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도서출판 하우)
- 어휘 자료는 계속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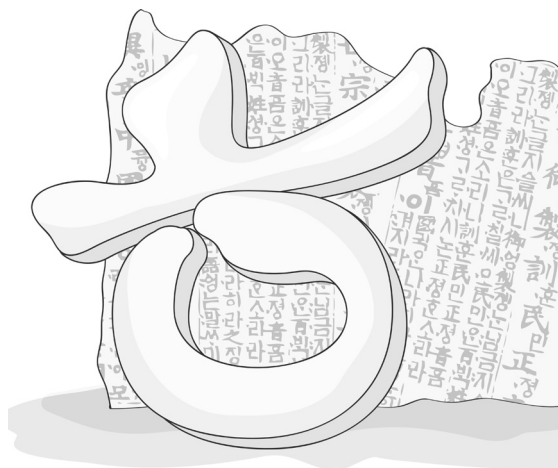
참고문헌

- 권순희·신명선·강보선(2012), 북한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 공공생활, 도서출판 하우.
- 권순희·신명선·강보선(2012), 북한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2 : 문화생활, 도서출판 하우.
- 권순희·신명선·강보선(2012), 북한 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3 : 개인생활, 도서출판 하우.
- 강보선(2013),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용 어휘의 유형 및 선정 방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 신명선·권순희(2011),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한국어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정경일(2011),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관광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 및 정책

전 연 숙 |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 및 정책

전 연 숙 | 남북하나재단



차 례

I.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특징
2. 북한이탈주민 입국·거주 현황
3. 북한이탈주민 이해

I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세스
2.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체계
3.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II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1. 정착지원제도의 변천과정
2. 현행 정착지원제도의 주요내용
3. 정착지원금

I.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특징

- 해외체류 탈북자의 한국행 희망 시 “전원수용”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우리의 통일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
 - 북한이탈주민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체계를 구축, 우리의 통합능력을 제고
- 중장기 통일미래 전략 수립·지원에 기여
 -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정착 지원과정은 향후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일종의 “모의실험” 성격으로 기능
 - 동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남북한 주민의 인적 통합 및 체제 전환 교육 등 향후 남북간 사회통합 시 필요
- ‘수혜적 보호’ 정착지원 → ‘자립·자활 중심’의 정착지원
 - 일방적·수혜적(현금성) 정착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자립·자활 중심의 제도 운영
 - 인센티브제 확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남북관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내부적 과제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업무는 남북관계 조정국면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일상적·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업무
 -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없으며,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 협조와 지원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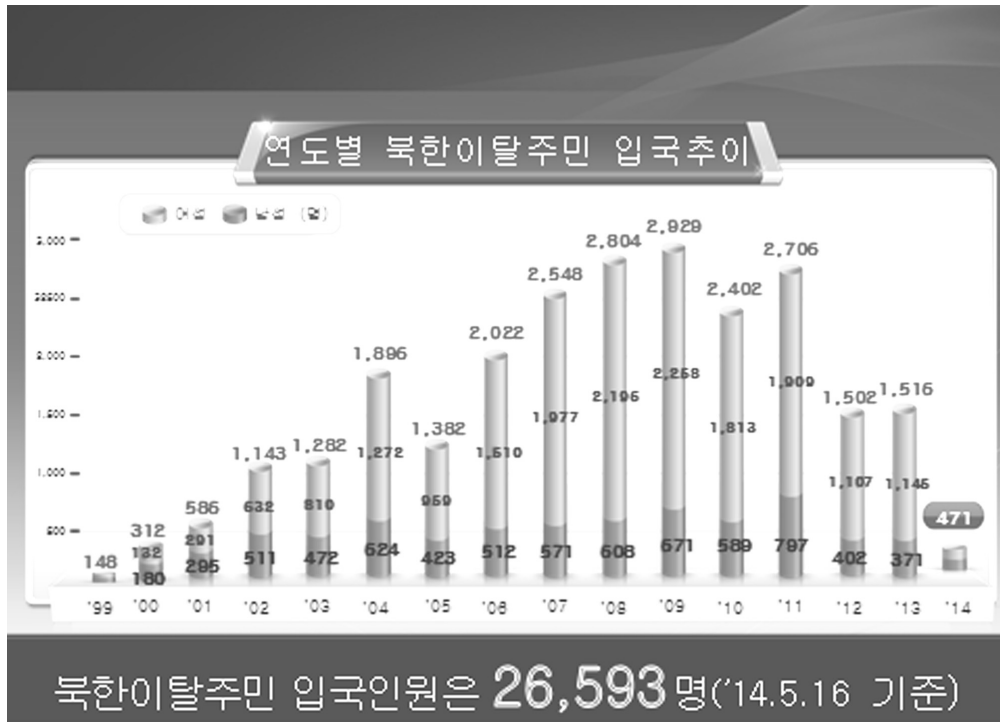
2. 북한이탈주민 입국·거주 현황

- 법상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생활근거지가 있었던 자가 △북한을 이탈한 후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
 - 이에 따라 중국 출생자녀, 조선족, 화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
 - 용어 관련 2004년 말 「새터민」이란 용어를 선정, 확산하였으나,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2008년 말부터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사용

○ 입국인원은 증가추세 후 2009년 이후 감소 추세

- '02년 1,000명대, '06년 2,000명대에 진입, 여성 입국자수는 '02년을 기점으로 남성 입국자수를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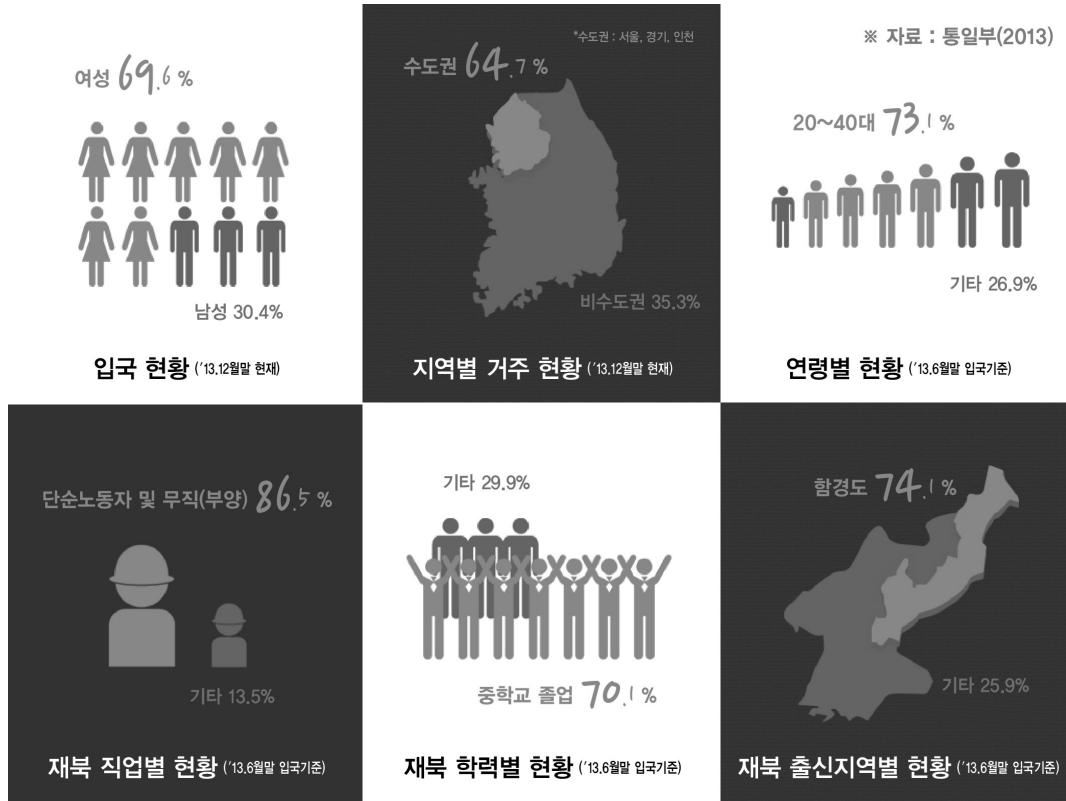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추이 〉



연도	'97년	'02년	'07년	'14년 5월
입국자	876명	3,128명	12,248명	26,593명
(특징)	(정착지원법 제정)	(연간 입국자 1천명 초과)	(입국자 누계 1만명 초과)	(입국자 누계 3만명 시대 도래)

○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은 △함경도 출신(74%) △20~40대(73%) △여성(70%)이 상당부분을 차지

- 함경도 출신 : 지리적 특성(강폭이 좁고, 수심이 얇은 특성)
- 20~40대 :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도전정신, 은둔·도피생활 대처 등
- 여성 : 북한 내 이동이 자유로운 점, 제3국 은신·체류의 이점 등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거주지는 임대아파트가 많은 △양천구 △강서구 △노원구 △인천 남동구에 각각 1,000여명 이상이 밀집 거주

- 북한이탈주민이 서울·경기에 밀집 거주함에 따라 지방거주장려금 증액 등을 통해 지방거주를 장려
- 공단이 많이 있는 여수, 울산 등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지 않아 취업과 주거가 연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3. 북한이탈주민 이해

□ 탈북원인

○ 북한체제에 대한 반발과 식량난 등 경제악화로 인한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탈북 시기와 개인에 따라 상이

- (1990년대 중반 이전) 비인간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정치적·사상적 동기와 이에 따른 신변안전의 이유가 주원인
-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 등 경제적 동기가 주요 탈북이유이며, 출신성분, 체제불만을 토로 하다가 생긴 위험과 갈등, 유학중 다른 세계를 경험하며 느낀 조국에 대한 회의 등 이 시기에 탈북 원인은 다양
- (2000년 이후) 2000년 이후부터 가족단위,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의 입국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며, 탈북 이유가 다양
 - 신분상의 안전을 보장받는 곳에서 살기 위해, 기입국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더 나은 교육기회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

□ 탈북 및 입국과정

- (북한 탈출 준비) 이제껏 살아왔던 북한을 탈출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후 수단으로 탈북을 결심
 - 통제사회인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은밀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심지어 가족에게 조차 알리지 못하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
-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생활) 북한에서 최종점검을 하고 가족을 설득하고, 체포당할 위험을 감수 하며 탈북을 시도
 - 불법체류자로서 은신처에 숨어 지내면서 한국 입국에 도움을 줄만한 친인척과 입국 브로커, 한국대사관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보내는 시기
 -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 무려 4,000여km의 탈북여정에서 식량과 물의 부족, 추위와 더위 등 혹독한 상황을 견디면서 신체적 손상은 물론 죽음의 위기까지도 경험

□ 북한이탈주민들의 일반적 애로사항

①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남북관계, 체류국가의 상황과 입장, 그리고 국제정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
-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해당국이 난민협약 등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할 경우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받으나,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

-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 등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인신매매, 저임금 노동착취 등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으며 중국 공안원들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기도 함.
- 정부는 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과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이들의 체류여건 개선과 조기 입국을 적극적으로 지원

②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

-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 북한이탈주민은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죄의식과 그리움이 크며, 가족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임.
- 건강상의 어려움 :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치과, 산부인과, 내과적 질환을 많이 앓고 있으며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적 장애를 호소
 - 북한에서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고향과 가족을 떠나오면서 심리적 고통과 우울함, 탈북과정에서 생활의 피폐함 등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 취업능력부족과 직업유지의 어려움 : 북한에서 익혔던 기술은 남한사회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에 이르지 못하나 이들의 취업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음.
- 경제적인 어려움 : 남한에서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 등으로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느낌.
 - 무직 또는 비정규직 혹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궁핍
- 생활적응의 어려움 : 낯선 남한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 나가야 함.

II.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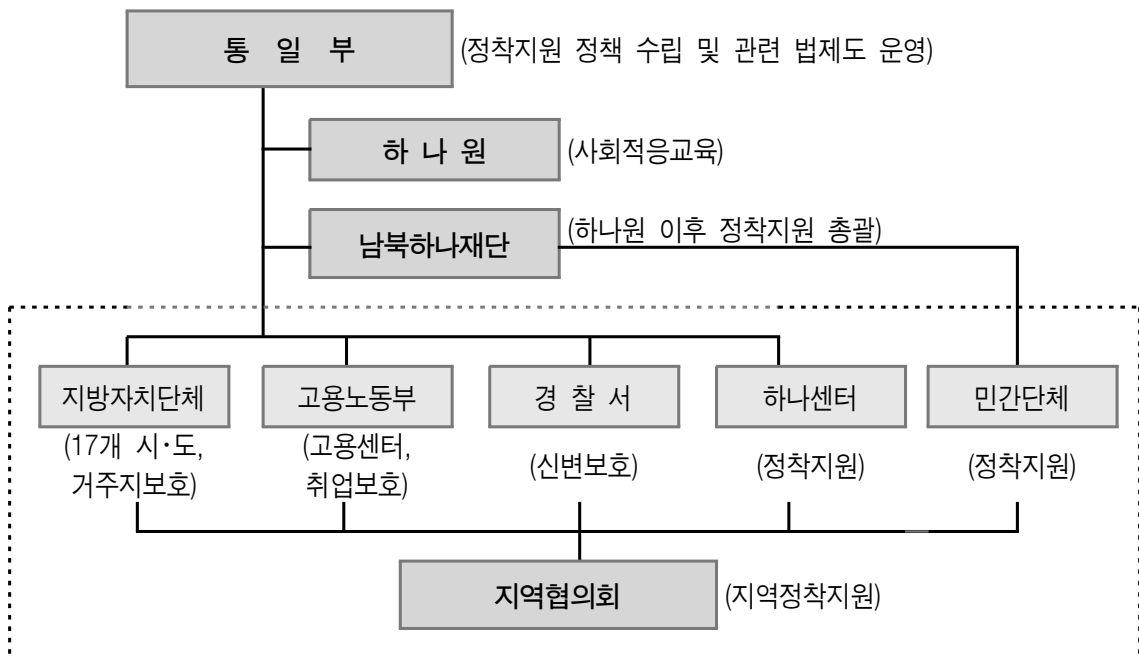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세스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간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합동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하나원의정 착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교육(1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 가족관계등록, 주거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 호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안전망 편입 (생계·의료급여)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제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제 운영
공공서비스· 민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운영(전국 30개) ○ 정착도우미제 : 민간자원봉사자와의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100명) : 종합상담 실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10.9.27 설립)을 통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사회적응 지원, 민간단체의 구심체 역할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중앙정부(통일부)를 주축, 남북하나재단을 중추로 하여 유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NGO 및 민간 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정착지원 체계도 〉



3.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 :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 개 요

- 정착지원법 제정('99.7.14)에 따라 '99.7.8 준공, 개원
 - 본원(안성 소재), 분원(양주 소재)을 합하여 최대 1,000명 수용 가능
-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기초 직업훈련 포함)을 실시, 가족 관계등록·주민등록증 발급·정착지원금 지급·주택 알선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 지원 업무 수행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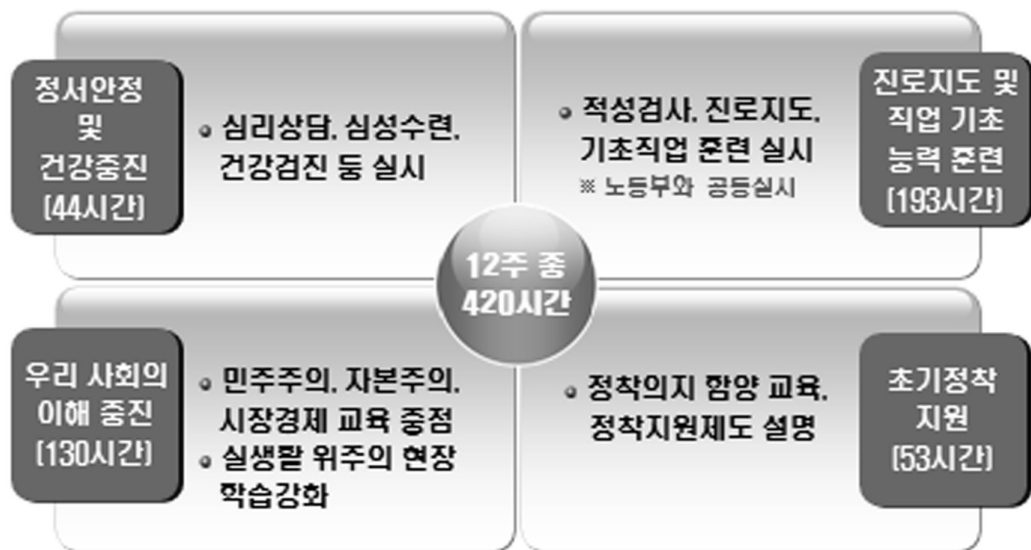
-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 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별(본·분원), 연령대별(유아반, 유치반, 청소년반, 성인반, 경로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응교육 실시

○ 교육목표

-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 사회적·경제적 자립 의식과 직업 기초능력 배양
- 심리적 불안정 해소 및 부적응 예방

○ 교육과정 내용(12주, 420시간)



※ 일과 외 특강 실시 : 컴퓨터(24), 영어(20), 자동차 이론(16), 직종설명회(16)

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1) 남북하나재단

○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제30조)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설('10.3.26 공포, '10.9.27 발효와 동시에 설립)

- 민간부문의 지원활동을 통합·조정하고 중·장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 새로운 위상과 역할 부여
- 정부(통일부·하나원)는 정책·제도 및 적응교육을 담당, 민간(재단)은 구체적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는 효율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하나원 수료 이후 정착지원 서비스 총괄

○ 역할

- 종합정착지원 원스톱 서비스기관(Total-Care)으로 생활안정 및 취업 등 정착지원 그물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해 사회통합 추진
-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 및 가교(Hub-Bridge)역할자로서 정착지원 거버넌스의 권역별 구심점 역할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미래를 대비하는 정착지원 싱크탱크(Think-Tank)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조사연구의 중추 역할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정보인프라 구축

○ 주요사업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사회적응 △취업지원·직업훈련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전문상담인력의 양성 및 전문상담 △관련 민간단체 협력 △정착지원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실태조사·통계구축 △기타 정부 위탁사업 등 (정착지원법 제30조제4항)

2) 하나센터

○ 개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9.1.31)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거주지 적응교육’ 조항 신설

○ 목적

- 신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거주지 편입 직후 “3주간의 체계적인 지역안내교육”과 “1년간의 사후관리”를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체계를 구축

○ 주요 사업

- 시행주체 : 통일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및 평가 : 남북하나재단
- 2009년 전국 6개 지역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4년 5월 현재 전국 31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임.
- 거주지 전입 직후 최소 60시간(1일 4시간 이상, 3주) 집중교육을 실시, 지역적응교육 이후 1년간 「사후지원」 실시

3) 보호담당관 제도

- 각 지역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지방자치단체),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신변 보호담당관(지방경찰청) 등 3개 보호담당관제 운영.

① 거주지 보호 담당관

- 근거 :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2조, 제31조), 동법시행령(제49조),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제15조)
- 개요
 -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위임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며, 지정 즉시 통일부에 통보
 - 지정된 거주지보호담당관(209개 광역·기초단체)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 및 각종 사후지원
 -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혜택 지원 및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로 편입 및 사회복지 지원

② 취업보호 담당관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제16조, 제17조), 동법시행령(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49조),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제3조)
- 개요
 - 전국 55개 고용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구성된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알선하고 동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 범위 내 5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4년간 고용지원금 지원

- 남한 직업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거주지보호기간(5년)이후에도 직업훈련 지원 (1년간 훈련수당 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를 위하여 6개월 이상 취업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

③ 신변보호 담당관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 개요
 -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약 700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 신변 보호 및 정착지원 활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는 거주지에서 외부의 신변 위해 요소 제거 및 방지를 위하여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진출시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
 - 신변보호방법은 신변위해요소에 따라 상시보호에서 비상연락망 유지 보호까지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을 심사하여 결정
 - 신변보호기간은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실시

4)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 '13년도 12월 현재 91개 광역·기초단체에 지역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지역협의회는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착지원의 역할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성된 관계자들의 협의기구로써 2001년 서울시 노원구에 최초로 설치되었음.
- 지역협의회는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당관, 지역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종교·민간단체, 기업체,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별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생활실태 파악 등 각종 애로, 상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Ⅲ.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1. 정착지원제도의 변천과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는 1962년에 법률로서 공식적으로 제정된 이래, 그 명칭과 내용이 변천을 거듭

① 보안차원 수용시기(1953~1961)

-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은 공식적으로 1962년에 제정, 그 이전에는 법률로서 규정되지 않고 정보 및 보안부서가 담당
 - 이 당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 안보 차원에서 수용

② 보훈차원 수용시기 (1962~1978)

- 1962년「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개시
 -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

③ 체제선전차원 수용시기(1979~1992)

-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규정이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 보상법」으로 통합·제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수립
 - 보상금의 지급은 물론 특별임용제도, 주택무상제공, 본인과 가족에 대한 직장알선·교육 보호·의료보호 등 국가유공자를 상회하는 지원

④ 사회복지차원 수용시기(1993~1996)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이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혜적 혜택을 축소하고, 주무부처를 국가보훈처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

⑤ 통일대비적 차원의 수용시기(1997~ 현재)

- 통일대비적 성격으로 1997년 7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 동 법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훈련과 직업훈련 등 구체적 보호기준을 명시하고, 이들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것
- 동 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추이와 적응실태를 반영하여 1998년부터 2010년 3월 26일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항이 개정되기를 반복하면서 1997년 이전 보다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률의 변천과정〉

지원법률	시기	내용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62.4~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1979.1~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 실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1993.6~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심화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을 인정하고, 취업 보호기간을 확대하는 등 이들의 직업능력과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2. 현행 정착지원제도의 주요내용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2,510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 (장애1급)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지원금 지원
취업	직업훈련	•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총3회의 직업훈련을 무료로 수강하며,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취업보호제)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장에 급여의 1/2을 최대 48개월간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55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알선 역할 담당

구분	항목	내용
사회복지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 급여 지원(1인 세대 月 약 46만원)
	의료보호	•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 없이 의료 혜택
교육	대학 특례 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 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정착도우미	-	• 북한이탈주민 1세대 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 생활 지원(전국 1,500명)
자격인정	-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3. 정착지원금

○ 정착기본금(주거지원금 포함)

(단위 : 만원)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인	400	300	1,300	2,000
2인	500	700	1,700	2,900
3인	600	1,000	1,700	3,300
4인	700	1,300	1,700	3,700
5인	800	1,600	2,000	4,400
6인	900	1,900	2,000	4,800
7인이상	1,000	2,200	2,000	5,200

※ 정착기본금은 사회배출 초기에 기본적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단위로 지원

○ 장려금

구분	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총 500시간 미만	-	미지급
	총 500시간	120	
	총 620시간 이상	140	
	총 740시간 이상	160	
	* 1년 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추가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수혜자	200	신청 횟수 : 1회
	독학으로 취득한 자격	200	

구 분	기 준	금액(만원)	비 고
취업 장려금	6개월 동일업체 취업	(수도권) 200 (지방) 250	
	1년차	(수도권) 450 (지방) 550	
	2년차	(수도권) 550 (지방) 650	
	3년차	(수도권) 650 (지방) 750	
총액(최고액)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 정착장려금은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 장려금으로 구성되며,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자립·자활 유도를 위한 정착금, '07년 취업장려금을 현재의 수준으로 대폭 증액

○ 가산금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 기준	지급수준
연령 가산금	만 60세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병으로 3월이상 입원	개월×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세대당)

※ 정착가산금은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정착금

※ '05년 제도개선 시 정착가산금 가액을 대폭 상향했으며, 결손가정아동보호가산금 신설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이 대 성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

이 대 성 |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1. 서 론

언어예절은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적 지식이다. 언어예절 문제는 향후 남북의 언어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의 주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언어예절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남북의 언어예절이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조사하여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언어예절을 호칭·지칭어, 인사말, 높임법으로 나누어 남북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북한어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¹⁾

2. 가정에서의 남북 호칭·지칭어 비교

1) 아버지

북한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학교에 다닐 때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 자라서는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그런데 규범서별로 차이가 있어 일부에서는 ‘아버지,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꼭 존대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 ‘아빠’의 사용 여부를 관찰한 결과, 어린 연령대에서 ‘아빠’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나 ‘아버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한에서 ‘아빠’를 늦은 나이까지 사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 [4~5세의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도 달라.(영상, 다시 만납시다)

1) 이 교재는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국립국어원, 2013)를 활용한 것으로, 남한의 언어예절은 『표준언어예절』(국립국어원, 201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북한의 언어예절은 『우리말 레절법』(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2011)을 비롯한 언어예절 규범서들과 학술지, 소설, 동영상 등을 참고하였다.

2) 어머니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규범서에서는 유아기에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 ‘아빠’의 경우와 다른 점은, 소설과 영상 자료를 분석해 보면, 탁아소나 유치원 아이들은 ‘엄마’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영상에서는 20대의 딸이 경우에 따라 ‘어머니’와 ‘엄마’를 섞어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남한과 그 사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0대 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위와 동일인이] 엄마! (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3) 자녀

북한에서도 혼인 전에는 이름을 부르다가 혼인 후에는 ‘○○[손주 애비/아비]’, ‘○○[외손주 에미]’, ‘○○[외손주 엄마]’, ‘○○[딸이 시집간 지역명 아이]’로 부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혼인한 딸인 경우 시집 쪽의 주소를 따라 ‘평성 아이’, ‘순천 아이’처럼 부를 수도 있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아빴’이나 ‘어멈’은 조선시대 양반과 평민이라는 계급적 특성을 드러내는 용어로 보고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4)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남한은 시아버지를 부르는 경우 ‘아버지’는 허용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경우만 ‘어머니’가 가능하다. 반면 북한에서는 시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 모두 허용한다. 즉, 규범상으로는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에서 남북이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시부(嫜父)를 ‘아버지’라고도 하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며느리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며느리를 ‘애’, ‘며늘애’라고 부르며 일부 지방에서는 ‘새애기’라고도 한다. 남한에서처럼 ‘어멈’이나 ‘어미’로 부른다는 언급은 없다.

5) 처부모와 사위 사이

남한에서는 처부모를 부르는 호칭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허용되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허용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남 앞에서 처부모를 가리킬 때 북한에서는 ‘장인’, ‘장모’와 함께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가시아버지’, ‘가시어머니’도 사용한다.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는 장인의 호칭으로 ‘아버님’만 관찰되었으며 장인을 아내 앞에서 가리킬 때 ‘동무 아버님’의 형태도 사용하고 있었다.

- [남편이 아내에게] 동무 아버님은 그래도 이름난 원사 선생님인데 사는 건 왜 그렇소? 너무 소박하더구만. (소설, 지워지지 않는 글)

북한에서는 사위를 부르는 말로 ‘이 사람’, ‘자네’, ‘임자’, ‘○○[외손주 애비]와 같은 말들이 쓰인다. 남한에서 흔히 쓰는 ‘○ 서방’은 봉건시대의 잔재로 간주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노년의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호칭인 ‘임자’가 북한에서는 사위를 부르는 말로도 쓰이는 점이 눈에 띈다.

6) 남편과 아내 사이

결혼하자마자 ‘여보’나 ‘임자’와 같은 호칭을 쓰는 것이 어색하기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 씨’ 또는 ‘자기야’ 같은 호칭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는 이런 경우에 ‘동무’를 붙여 부른다. 소설에서는 노년 부부 사이에서도 ‘동무’를 사용하는 예가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말 레절법』에 따르면 시부모와 같이 있을 때 부부 간에 ‘동무’로 부르는 것은 교양이 없는 것이므로 대신 ‘이봐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봐요’ 등 간접적인 부름말을 쓰도록 권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학교, 직장, 공공생활 등 사회적 관계에서는 ‘동무’, ‘동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점과 대비된다.

○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명훈 동무! 이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보구 좋아하실까요?
(영상, 손주 며느리 오는 날)

○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철석 동지, 또 있어요. (영상, 내 고향의 바다)

북한에서도 노년 부부는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령감’, ‘로친네’라고 부르거나 이르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고 한다. 남한에서 노년 부부 사이에 ‘영감’, ‘임자’라고 부르는 것과 대응된다.

○ [노년의 남편이 아내에게] 로친네, 잡생각 말고 참외나 받소. (영상, 손주 며느리 오는 날)

남편을 남에게 이룰 때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주인’, ‘세대주’를 사용하기도 한다.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 ‘세대주’는 남편의 지칭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으며, 규범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서방’을 쓰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 아주머니, 주인이 누구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까?(소설, 이상한 목소리)

○ 젊은 사람이 참 무던해요. 글쎄 그 집의 웬만한 빨래는 세대주가 다 하군 한다오.
(소설, 행복의 무게)

○ 아니, 이번엔 서방까지 데려왔나?(영상, 설 풍경)

북한에서는 ‘여보’가 부부 사이가 아닌 남남끼리, 사회생활에서 남자들끼리 주고받는 말에서도 쓰일 정도로 일반성을 띠고 두루 쓰일 수 있는 호칭이다. 소설과 영상에서도 ‘여보’는 중년 이상의 남자들 사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 [지배인이 기사장에게] 여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소?(영상, 길을 비켜라)

또한 북한에서 ‘임자’는 노년의 아내에 대해서만 쓰이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도 널리 쓰이고 있다.

○ [중년 여자가 청년에게] 임자를 보니 우리 철명이 생각이 더 나누만. (소설, 비결)

7) 동기와 그 배우자

북한에서는 형의 아내를 ‘형수’, ‘형수님’, ‘아주머니’, ‘아주머님’이라고 부른다. ‘-님’이 붙지 않은 ‘형수’가 사용되는 것이 남한과 다르다. 남동생의 아내는 ‘제수’, ‘제수님’, ‘아주머니’로 부른다. ‘제수님’은 점잖게 부를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씨’를 덧붙이지 않는 ‘제수’ 또는 ‘계수’의 사용과 ‘제수님’의 사용이 눈에 띈다.

○ 아니, 제수, 왜 거기 서 있소? (영상, 행복은 어디에)

남한에서 누나를 부르는 말은 ‘누나’, ‘누님’이다. ‘누이’는 호칭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북한 소설과 영상 자료에서는 ‘누이’가 누나의 호칭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

○ 아주머니가 우리 누이 결혼식에 어떻게……. (영상, 해빛 밝아라 2부)

남한에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매부’, ‘매제’이다. 북한에서는 여동생의 남편을 ‘매부’ 또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봉건 사회의 잔재라고 보아 ‘서방’이 들어간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남한에서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새언니’, ‘언니’이다. 오빠의 아내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는 오빠의 아내를 일반적으로 ‘형님’으로 부른다. 『우리말 레절법』에서는 지방에 따라 ‘오레미’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 오빠랑 형님은 잘 있어요? 보영이도.(영상, 새로 온 처녀 인수원)

북한에서는 언니의 남편을 ‘아저씨’ 또는 ‘형부님’이라 한다. 『조선말대사전』에도 ‘아저씨’가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도 뜻풀이되어 있다.

○ [조카에게 형부를 지칭하면서] 아니, 아저씨가 널 그렇게 했던 말이나? (영상, 아지미)

북한에서 형수는 시동생에게 ‘적은이’라고 하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여 ‘영철이 삼촌’, ‘영순이 삼촌’으로 부른다. 남한에서 쓰지 않는 ‘적은이’라는 호칭이 특이하며 남한 규범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자녀의 이름을 기댄 호칭이 허용되고 있다.

○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묘목도 가져오고 적은이네 새 집도 짓고…….

(영상, 구봉령 일가)

8)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

북한의 규범서에 따르면, 남편 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어로 ‘동서’, ‘동생’, ‘아우’를 쓰며 ‘영수 어머니’, ‘영희 어머니’와 같이 조카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동생’, ‘아우’처럼 친동기간에 쓰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점, 남한 규범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조카 이름을 기댄 호칭을 허용한다는 점이 남한과 다르다.

남한에서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은 ‘형님’이다. 북한에서도 ‘형님’이라고 하는데 ‘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손위, 손아래를 구별하지 않고 ‘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붙여 ‘광명이 고모’ 등으로 부를 수도 있다.

○ [남편의 누나에 대해 말하며] 에이, 난 누이 보기 괴로워서 빨리 우리 담당구역에 새 집을 짓고 나오자는 거예요.(영상, 구봉령 일가)

남한에서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은 ‘아가씨’, ‘아기씨’이다. 남편의 여동생이 혼인을 하여도 호칭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에서는 ‘누이’, ‘동생’을 사용하는데,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붙여 ‘광명이 고모’라고 하거나 조카의 이름을 붙여 ‘광수 엄마’, ‘광수 어머니’와 같이 부르기도 한다. ‘아가씨’, ‘아기씨’도 ‘서방’과 마찬가지로 봉건 사회의 잔재라고 보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시누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아니, 누이가 아니에요? (영상, 구봉령 일가)

북한에서 시누이의 남편은 ‘아재’ 혹은 ‘아저씨’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옥희 고모아저씨’, ‘고모부’라고 간접적으로 부르는 것도 무난한 말로 본다.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라면 ‘김 선생’, ‘전 선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9) 그 밖

북한에서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따로 없으나 항렬을 따라 ‘아주머니’라 부를 수 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붙여 ‘철호 큰어머니’, ‘영희 이모’라는 부름말을 쓰며 그냥 ‘큰어머니’, ‘이모’라는 부름말을 쓸 수도 있다. 남한에서 아버지 형의 아내를 부르는 ‘큰어머니’를 ‘처형’의 호칭으로 사용하는 점은 남북 주민 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에서는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작은어머니’ 또는 ‘삼촌어머니’라고도 부른다. 영상에서는 ‘삼촌엄마’라 부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라고 부르며 출가한 다음에는 ‘이모 어머니’, ‘아주머니’라고도 부른다.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 또는 ‘이모아버지’라 부른다.

○ [유치원 여자아이가 아버지 동생의 아내를 ‘삼촌엄마’라고 이름 증조할머니, 삼촌엄마 신발 내가 벗겨줄래요.(영상, 손주 며느리 오는 날)

3. 사회에서의 남북 호칭·지칭어 비교

1) 동무와 동지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모든 주민은 이 목적을 위해 싸우는 혁명 동지들이다. 북한은 이런 관점을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주입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동무·동지’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관계를 혁명 동지로서의 관계로 환원함으로써 집단의 일원, 혁명사업의 단위로서 자신과 서로를 인식하고 상대하도록 유도한다.

‘동무·동지’의 사용은 동지애를 고취해 조직의 단결심을 높이고 조직 성원으로서의 존재와 역할을 자각하게 만든다. 이런 의도로 북한 규범서에서는 사회생활에서 직위나 이름만으로 부르지 말고 반드시 ‘동무·동지’를 붙여 부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인 사용 권장은 학교 교육에서도 ‘동무·동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게 만든다. 북한 규범서와 학술지, 잡지에서는 ‘동무·동지’의 의미와 정신을 일찍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즐겨 쓰도록 해야 한다고 다음처럼 기술하고 있다.

혁명적 조직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데서 새세대 학생 청년들 속에서 《동무》라는 부름말을 어릴 때부터 쓰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생활론』

이러한 정책적 강조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규범서에서 ‘동무·동지’가 사회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호칭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실제로 직장, 조직, 학교, 공공장소 등 북한 사회생활에서 가장 폭넓게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소설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무》와 《동지》라는 말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말로 되었다. 오늘 《동무》라는 말이 쓰이는 범위는 실로 넓다.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사이, 젊은이들과 젊은이들 사이, 늙은이들과 늙은이들 사이의 동료들끼리 남녀별 구분이 없이 《동무》라는 말을 널리 쓰고 있다.

『언어생활론』

‘동무·동지’는 단독으로 부름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름, 직위, 직종, 명예칭호 등에 붙여 많이 쓰인다. 다음은 『우리말 레절법』에 기술된 네 가지 기본적 용법이다.

첫째, ‘동지’, ‘동무’가 단독으로 부름말로 쓰이기도 한다.

- 동무, 길 좀 물어봅시다.
- 동지, 이처럼 큰일을 해 놓았는데 이름이라도 좀 알고 지냅시다.

둘째, 사람의 성이나 이름, 성과 이름에 ‘동무’, ‘동지’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존대를 표현할 사람의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사회생활에서 이름을 불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름 뒤에 ‘동지’, ‘동무’를 붙여야 한다.

- 영숙 동무, 너동무들이 다 왔소?
- 최영수 동지, 군사복무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셋째, 직위 또는 직종 이름에 ‘동무’, ‘동지’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동지’와 ‘동무’를 직위나 직종에 붙여 쓰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예절 표현 방식이다.

- 국장 동지, 소장 동지, 부원 동지
- 운전수 동무, 타자수 동무, 리발사 동무

넷째, 사회적으로 알려진 명예칭호나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일반 단어에 ‘동지’, ‘동무’를 붙여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 북한 언어생활에서 ‘동지’, ‘동무’라는 말은 ‘유치원 어린 동무들’, ‘꽃봉오리 동무들’로부터 시작하여 최대 존칭에 이르기까지 사회언어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 영웅 동지, 영예군인 동지, 인민배우 동지
- 어머니, 래일 처녀 동무를 한 명 데려오려고 하는데 괜찮지요?

2) 선생(님)

북한에서 ‘선생(님)’은 교원, 학자, 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업을 가진 인물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대상에게 존대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이들 직종 이외에는 ‘선생(님)’을 붙여 부를 수 없다. 즉 ‘소장 선생, 실장 선생, 의사 선생, 기자 선생, 작가 선생’은 되지만 ‘국장 선생, 지배인 선생, 운전수 선생...’등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선생(님)’이 남을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일반적인 존대어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남한의 ‘선생(님)’은 특정 직종 종사자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까지로 한정된 북한에 비해 그 사용역이 넓은 편이다.

북한 소설과 영상에서는 보통 ‘영숙 선생님’처럼 성보다는 이름에 ‘선생님’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김 선생님’처럼 성을 붙인 형태가 더 자주 쓰이는 남한과 차이가 있다. 또한 ‘기자 선생님’, ‘교수 선생님’, ‘박사 선생님’, ‘실장 선생님’처럼 직함, 학위명에 ‘선생님’을 붙인 형태도 남한에서는 낯설거나 잘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다. 남한에서는 ‘기자님’, ‘교수님’, ‘박사님’, ‘실장님’과 같이 존칭접미사 ‘-님’만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사회적 관계에서의 호칭과 지칭

북한의 규범서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특히 조직생활)에서 친족 호칭어는 삼가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족, 친척 관계의 감정이 풍기는 말들을 쓴다면 사회생활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형님》, 《언니》와 같은 말들은 동무들 사이에도 흔히 쓰이는 부름말이다.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손우의 사람들에게 친근한 부름말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집단생활 특히 조직생활에서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우리말 레절법』

그러나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생활에서도 나이가 많은 대상에게는 ‘아바이’나 ‘아주머니’ 같은 친족 호칭어를 쓰는 것이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위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친혈육의 정을 느끼게 한다거나 공적 사업을 집안일처럼 여기도록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집단의 일감을 놓고서도 사적으로 오손도손 주고받는 일상 대화에서 쓸 수 있는 부름말로 이야기를 나누니 요구하는 의도가 마음속에 차분히 자리잡혀 주인답게 일할 데 대한 요구가 강요가 아니라 제 집안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언어생활론』

소설과 영상에서도 친족명만으로 부르거나 직무나 직위, 이름에 친족명을 붙여 부르는 경우가 다수 관찰되었다. 규범에서는 ‘아바이’, ‘아주머니’ 등 나이 많은 연장자에 대해서만 허용하지만,

실제로는 ‘언니’ 등의 다른 친족명도 사용되고 있었다.

- [사무실에 들어서며] 수골하십니다. 아니, 직장장 아바이가 어떻게?(영상, 미결건은 없다)
- 관리위원장 어머니, 그건 왜 그렇게 하나요?(소설, 푸르른 대지)

동료나 하급자의 이름만 부를 때 어조를 고르는 접사 ‘-이’가 활발하게 쓰이는 점도 남한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여러 청년들 앞에서 리당비서가 청년에게] 윤철이, 수고했구만. (영상, 불빛)
- 서연이, 모든 걸 포기하자는 이유가 뭐요? (영상, 저 하늘의 연)

북한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지인을 부를 때는 ‘큰아버지, 큰엄마’라고 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영상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조선말대사전』에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형인 아저씨별 웃어른’으로 풀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형’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아버지의 상급이자 지인에게]
가 : 큰아버지.
나 : 아니, 너 경순이 아니냐. (영상, 해빛 밝아라)

남한에서 식당, 상점 같은 영업소의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저씨’, ‘젊은이’, ‘총각’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 ‘아가씨’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아줌마’는 상대방을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나이가 많은 종업원이나 친한 사이가 아닌 종업원에게는 호칭·지칭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손님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언니’ 또는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물론 어린이는 ‘아줌마’, ‘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주로 식당, 상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쓰는 말은 ‘여기요’와 ‘여보세요’이다.

북한에서는 식당, 상점, 여관, 공원, 유원지의 직원(접대원, 판매원, 관리원 등)을 부를 때 ‘직종’에 ‘동무’를 붙여 부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여관에서] 관리원 동무,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그러니 좀 비켜주우. 우리한테 이제 30분밖에 시간이 없소. 응, 간호원 동무!
(소설, 한생의 초여름에)

4) 그밖의 특이 사항

남한에서는 ‘기사님’, ‘과장님’ 등 접미사 ‘-님’을 직무나 직위명에 붙여 존대를 표현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님’은 일부 친족 호칭어, 최고 지도자 일가를 부르는 호칭어, 일반명사와 결합한 호칭어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 훨씬 그 쓰임이 좁다. 남한의 ‘-님’과 유사한 존대 기능은 ‘동지’, ‘선생님’이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친족 호칭·지칭어 : ‘형님’, ‘누님’, ‘따님’,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할머님’ 등
- ㉡ 최고 지도자 일가를 부르는 호칭·지칭어 : ‘수령님’, ‘장군님’, ‘원수님’ 등
- ㉢ 일반명사와 결합한 호칭·지칭어 : ‘로인님’, ‘부인님’ 등

접미사 ‘-님’을 붙인 존대형이 남북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 빈도에서 남북이 차이를 보인다. ‘부모’와 ‘부모님’의 경우가 그렇다. 남한에서 지칭어로는(특히 자신의 부모를 가리킬 때) 보통 ‘부모’보다는 존대형인 ‘부모님’을 사용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칭어로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사용한다. 만약 남한에서 예문에서처럼 자신이나 남의 부모를 가리킬 때 ‘-님’이 붙지 않은 ‘부모들’을 쓴다면 무례하게 들릴 것이다.

[자신의 부모를 가리킬 때]

- 가 : 좀 더 있다 가구려.
- 나 : 역에서 부모들이 기다려요. (소설, 비결)

[남의 부모를 가리킬 때]

- 가 :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오?
- 나 : 저희 부모들도 농장원입니다.
- 가 : 동무네 부모들은?
- 다 : 농장원입니다. (영상, 자기를 바치라)

함남방언에서 ‘할아버지’를 뜻하는 ‘아바이’는 『조선말대사전』에 ‘나이가 지긋한 남자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로 올라 있다. 나이가 지긋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연령대를 뜻하는지 모호한데, 영상 자료를 통해 추정할 때 머리가 희끗한 60대 이상의 노인에게 쓰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 ‘설 풍경’에서는 ‘아바이’와 ‘로인’을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임철성(1997)은 영상 관찰 결과 아버지 또래, 남한의 ‘아저씨’ 쯤 되는 대상에게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보다는 더 연령이 높은 층에게 사용하는 듯하다.

『우리말 레절법』에서도 ‘아바이’는 사회에 널리 퍼져 쓰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소설과 영상에서도 ‘직무/직위+아바이’, ‘성+아바이’, ‘이름+아바이’, ‘지역+아바이’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아바이’는 초면이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면 무례하게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우리말 레절법』의 ‘청년들의 언어예절’을 다루는 장에서는 ‘아바이’는 친숙하고 허물없는 사이에서만 쓸 수 있는 말로 초면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 [잡지사 상사가 직원에게 취재를 지시하는 상황]

상사 : 그, 온성에 택배기를 잘 담그는 아바이가 있다는만. 조태주라고.

직원 : 조태주 로인. (영상, 설 풍경)

- 운전자 아바이랑 모두들 평양에 오면 꼭 들리십시오.(소설, 5시간 40분)

- [중, 장년 상급 남성이 흰머리 하급 남성에게]

소장 아바이, 림지를 돌아보러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습니까?(영상, 자기를 바치라)

‘동갑이’는 『언어생활론』에서 중년 이상의 친한 친구 사이의 호칭으로 소개되어 있다. 『조선말 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이다.

- 동갑이, 어제 소설책을 보내주어서 잘 봤구만.

‘처녀애’는 ‘처녀아이’의 준말로서, 북한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의 여자’뿐 아니라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주요섭의 「사랑방손님과 어머니」(1935)에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애입니다.” 같은 용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두 가지 뜻에서 남한에서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말로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소학교 저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에게] 넌 처녀애가 학교에도 안 가고 그런 일에 끼어들어, 응? (영상, 저 하늘의 연)

남한에서는 ‘아저씨’가 성인 남자 중 보통 30대 중반 이상, 장년 이상에게 사용되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20대의 남성들에게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주머니’의 경우도 유사하다. 남한에서는 ‘아주머니’는 주로 결혼한(또는 결혼했으리라 짐작되는 연령대의) 성인 여자에게 사용되지만 북한 영상에서는 대학생 등 20대의 여성에게도 사용되고 있다. 남한 화자들에게 ‘아주머니’와 비슷한 의미로 유추될 수 있는 ‘아지미’의 경우도 북한에서는 20대의 여성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영상에서 확인된다.

- [남자 아이가 누나에게 20대 여성을 가리키며] 누나야, 저 아지미 우리 엄마 찾는 거 같애.
(영상, 사랑의 거리)

남한에서 ‘형님’은 주로 장년층 이상에서만 사용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소학교 학생들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사용하고 있다.

- [대학생이 1년 선배에게] 형님, 그 선생의 말인즉은 내가 속물이라는 건데 이거야 어디…….
(소설, 교정의 룰리)

남한에서도 가족 이외의 지인을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초면인 사람에게까지 잘 쓰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초면의 사람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아주머니’와 같은 친족 호칭·지칭을 곧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버스 기사가 승객 아주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어머니! 아침에 정말 안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용서하십시오. (영상, 사랑의 거리)
- [중년 여자의 사진을 아이에게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있음]
이 어머니를 알아보겠니? (영상, 미결건은 없다)

4. 남북의 높임법 비교

1) 상대높임법

남북의 상대 높임법 등급 체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로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이다.

북한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십시오’를 사용한다. 남한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으로 ‘-십시오’를 사용하지 않고 ‘-시지요’를 사용하지만(고영근·구본관, 2008 : 426), 북한에서는 ‘-십시오’를 사용하고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를 예의 바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젊은이가 웃사람인 할아버지에게 《령감! 밖에 나가자.》라고 말했다면 이때 말을 듣는 할아버지에게 사상은 전달되어 의사는 통하지만 웃사람에 대한 레절 관계가 잘 표현되지 않아 말을 듣는 상대방의 인격이 무시되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님, 밖에 나가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웃사람에 대한 정중성과 존경이 잘 표현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양 정도와 친숙감을 느끼게 한다.

『조선말 레절법』

○ [소년 소녀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갑시다!(소설, 아지랑이 피는 들)

또한, 북한 자료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에 쓰일 만한 자리에 ‘-시자요’를 쓰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 [노인에게]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자요.(영상, 설 풍경)

○ “아버지, 나가시자요.”철옥이가 중석의 팔을 잡아끌었다.(소설, 비결)

그리고 북한에서는 ‘하십시오체’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즉,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반드시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하오체’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남한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성인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대화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하오체’가 일반적이다.

○ 아니 여보, 여기 수자들이 뭐라고 적혀 있소? 어서 안경을 가져다주오.(소설, 망부암)

○ 회의가 며칠 후에 있다던데 벌써 떠났소?(소설, 기준)

북한에서는 ‘해체’에 해당하는 어미 ‘-기요’가 널리 쓰이는 점 또한 남한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하하… 웁소! 웁게 말했소. 자, 동무들! 우리도 하기요. (소설, 높은 요구)

○ 이젠 그만하고 밥 좀 먹기요. 배고프구만. (소설, 비결)

북한에서 ‘해요체’는 주로 여성들이 쓰는 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하오체’로 말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해요체’로 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북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남성이 ‘해요체’를 사용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북한 규범서(『조선말 레절법』)에서 ‘해요체’가 오늘날 남자들 속에서도 점차 쓰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북한에서도 남한과 비슷한 변화를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해요체’와 관련해서, 남한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 몇 가지 더 있다. 북한에서는 워낙 자연스럽게 쓰이는 ‘-라요, -시라요, -자요’ 등은 남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 안심하고 빨리 돌아 오시라요. (소설, 나루가의 밤 이야기)

○ 왜 그렇게 우울해 있어요? 좀 웃으라요. (소설, 비결)

○ 좀 더 하자요. 이제라도 불들을 달구어 올가요? (소설, 비결)

2) 주체높임법

‘께서’는 본래 행동의 주체를 높일 때 두루 사용하는 조사이지만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일 때 주로 사용되는 조사로 기능이 변하고 있다. ‘께서’의 사용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토 대상 북한 자료에서 최고 지도자 일가 이외의 주체에 대해 ‘께서’를 사용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고 대신 ‘이/가’ 또는 ‘은/는’이 사용되고 있었다.

- 선생님이 널 찾아. 무슨 모임을 하는데 네가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 같애.(소설, 아버지의 마치)
- 글쎄 김일성 장군님께서 나라의 국장애다 이 언제를 새겨 주시였구나.(소설, 언제)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도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일 때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고 지도자 일가에 대해 쓸 때에는 최대한 많이 ‘-시-’를 쓰는 양상을 보인다.

- 장군님께서는 목이 꼭 메시여 말씀을 못 하시고 그렇게도 맑고 천진스러운 명숙의 눈을 피하시며 머리를 돌리시고 마시였다.
- 한 평생을 바치시며 수령님 걸어오신 혁명의 길 그 길에서 맞으신 새벽은 얼마이신가. (대명사술어)
- 장군님께서는 더욱 깊어지시는 가슴 아프심을 느끼시며 어린 영숙을 꼭 껴안으시였다.
- [점원이 손님에게] 뭘 사겠어요? (영상, 행복의 수레바퀴)

3) 높임과 낮춤의 어휘

높임 어휘 중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만 주로 사용됨으로써 사용역이 매우 좁아진 어휘가 존재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지 지도하다’, ‘교시하다’, ‘친솔하시다’, ‘심려하시다’, ‘보살피시다’, ‘배려하시다’, ‘선물하시다’, ‘심려’, ‘배려’, ‘선물’, ‘성함(존함)’, ‘안광’, ‘안색’, ‘신상’, ‘저택’, ‘몸소’, ‘친히’, ‘손수’, ‘가르치심’, ‘보살피심’, ‘부르심’ 등과 같은 단어들은 최고 지도자 일가를 높이는 데만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지시대명사 ‘그분’이나 ‘그이’도 주로 최고 지도자 일가를 가리킬 때 쓰며, 재귀대명사 ‘자기’는 대등한 사람에게, ‘자신’은 높이는 대상에게 쓰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3인칭의 높임말로 쓰이는 ‘당신’이 북한에서는 2인칭으로만 쓰이므로 높임의 뜻이 없다.

한편, 북한의 규범서에서는 어휘를 통해 상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에 대해서는 낮추는 언어예절을 적절히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북한에서는 계급적 및 민족적 원수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말에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는 경멸, 증오, 야유적인 단어들과 표현들을 골라 써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5. 남북의 인사말 비교

이 장에서는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대상과 아침과 저녁에, 만나고 헤어질 때, 통화할 때, 소개할 때 어떤 인사말을 나누는지 남북의 인사말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1) 대면 대화 예절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는 ‘안녕히’ 대신에 ‘잘’을 쓰면 상대방을 덜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남한의 『표준언어예절』의 기술과 상충되는 인사말로 남북 언어예절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집을 나서는 사람이 하는 인사말에 대해 『표준언어예절』에서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 등으로 인사하도록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와 같은 말은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반면 북한 규범서에서는 ‘갔다 오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남북 간 차이를 보였으나 남한에서도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이러한 인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질감은 크지 않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밖에서 손님이 부르면 일단 대답을 하고 문을 열어 주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집에 찾아온 사람을 확인하고 맞아들이는 현재의 남한 문화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북한 영상 자료에서도 집에 찾아온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며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 예문은 거주지가 아파트인 상황이며 요즘 남한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 [초인종 울린 후]

집주인 : 예. 누구예요? [그 후 문 열어 줌]

손님 : 말 좀 물어봅시다. 여기 인민반장네 집이 어덯니까?

집주인 : 반장? 8층 1호입니다.(영상, 소원)

북한 규범서 예문에 따르면 상점, 음식점 등의 서비스 기관에서 손님은 ‘안녕하십니까?’, ‘수고

하십니다.’ 등으로 인사한다. ‘수고하십니다.’는 북한 규범서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로 매우 권장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후 점원에게 하는 말 표현은 ‘식사 안내표를 좀 봅시다.’, ‘평양랭면 두 사람분 신청합니다.’ 등으로 의미는 통하나 남한과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다.

맞이하는 사람의 경우 남북 모두 ‘어서 오십시오.’가 기본적인 인사말이다. <표례>에서는 음식점과 찻집 등에서 주문을 받는 말이 필요할 경우 ‘무엇을 드시겠습니까?’[음식집], ‘무엇을 드릴까요?’[찻집 등], ‘주문하시겠습니까?’[공통] 등과 같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표현 중 ‘무엇 드시겠습니까?’는 남북이 공통이나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요리를 요구하십니까?’ 등은 남한에 비해 직접적이고 강한 어감이 들어 남한과 차이를 보인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로 북한 영상 및 소설에서 빈도 높게 사용된 것 중 하나가 ‘않지 않았습니까?’이다. 이 인사말은 남한에서 매우 생소한 표현으로서 남북 인사말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영남 : 아니, 아바이, 현미 아바이!

현미 아바이 : 아니 이게 영남이가 아닌가!

영남 :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새 않지 않았습니까? (영상, 생활의 거울 : 선미 어머니)

북한 자료를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라고 부릅니다.’라고 하거나 자기소개 전이나 후의 인사말인 ‘우리 친하자.’, ‘초면입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는 남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다. 이 중 ‘친하자.’는 ‘친하게 지내자.’와 같은 의미의 말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형용사에는 결합 제약이 있는 어미 ‘-자’가 형용사 ‘친하다’에 붙어 쓰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조선말대사전』에 ‘친하다’가 동사처럼 쓰인다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는 일부 형용사의 경우 남한과 달리 동사적으로 쓰이는 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하자.’는 대체로 화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학교 여학생 둘이]

옥경 : 네 이름은 뭐니?

서연 : 서연이야, 서연.

옥경 : 어, 네가 새로 왔단 애가? 난 옥경이야, 우리 친하자. (영상, 저 하늘의 연)

2) 전화 예절

남한에서는 ‘여보세요.’의 사용에 남녀 구분이 없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여성이 주로 ‘여보세요.’라고 하고, 남성은 주로 ‘여보시오.’라고 한다. 이는 북한에서 ‘하오체’는 주로 남성이 쓰고 ‘해요체’는 주로 여성이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표준언어예절』에서는 ‘여보세요.’를 집에서 전화 받는 말로, ‘네, OOOO[회사/부서/받는 사람]입니다.’를 직장에서 전화 받는 말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여보세요.’의 사용이 전화 받는 장소에 관계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남성, 기관에서] 여보시오. 아, 소장 동무요?(영상, 세대의 임무)

북한 특유의 인사말인 ‘전화 받습니다.’도 북한 영상 분석 결과 집과 직장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에서는 이 말 앞에 자신의 신분을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직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이나 직함 등으로 신분을 밝힌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 [남성, 집에서] 전화 받습니다.(영상, 생활의 거울 : 병은 네가 걸렸어)

○ [여성, 기관에서] 박옥화 전화 받습니다.(영상, 내 고향의 바다)

직장에 전화해서 통화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을 때 하는 말로 『표준언어예절』에서는 ‘○○○○ 씨 좀 바꾸어 주시겠습니까?’를 제시한 반면 북한 규범서에서는 ‘○○○ 동무를 좀 바꿔줄 수 없습니까?’와 같은 부정형 요청 표현을 주로 제시하였다. 남한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면 공격적이라 여겨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북한 규범서에 나타난 다음의 표현들은 남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회사에 담당자별로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전화를 바꿀 경우 내선 번호를 연결해서 통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화기가 담당자별로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당사자를 찾아 전화를 바꿔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래와 같이 ‘불러주다’, ‘찾아주다’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미안하지만 생산부에 있는 김철수 동무를 좀 불러주실 수 없을까요?

○ …철수 동무를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의 말로 『표준언어예절』에서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외에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등이 제시되었다. 북한 규범서에서는 ‘전화를/수화기를 놓겠습니다.’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며, ‘이만 하겠습니다.’와 같은 인사말도 제시해 놓았다.

3) 특정한 때의 인사말

남한은 신년 인사의 표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이고 북한도 이러한 인사말을 사용하나 ‘새해를 축하합니다.’가 더 전형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설날 이외에도 기타 명절과 기념일을 축하해야 하는 날로 보고 이에 대해 축하하는 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경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축하한다는 말 앞에 붙는 수식어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 자료에서는 ‘열렬히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남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 군인가족 예술소조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는 가족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영상, 해빛 밝아라)

남한에서는 순위 사람, 어른의 생일에 대해서는 ‘생신’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에게도 ‘생신’이 아닌 ‘생일’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생신’을 주로 최고 지도자 일가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버님, 생일을 축하합니다.(영상,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

『조선말대사전』에는 ‘번지다’의 뜻 중 ‘용모가 변해 가다’라는 뜻이 있어 위의 ‘귀엽게 번지누만요.’는 ‘귀여워지는군요.’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번지다’에 북한과 같은 의미가 없으므로 칭찬의 말로 사용할 경우 의미가 통하지 않게 된다.

- 돌생일을 축하합니다. 애가 참 귀엽게 번지누만요.

결혼을 축하하는 말은 본인에게 하는 말이나 부모에게 하는 말 모두 남북이 대체로 비슷하며 서로 통용될 수 있는 표현들이다. 다만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는 말로 북한에서 곧잘 쓰이는 ‘끝끝하다’와 ‘알뜰하다’는 남과 북에서 통용되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울 수 있다.

- 알뜰한²⁾ 며느리를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 끝끝한³⁾ 사위를 맞았으니 한시름 놓겠습니다.

북한에서 문상 인사말은 정형화된 것보다는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북한 규범서에 제시된 문상 인사말은 남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남한에서 사용하면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도 있다. 아래 예문에 사용된 ‘오래 앉아 계시다’, ‘더 앉아

2) 생김새가 나무랄데 없이 맏히고 아릿답다.(『조선말대사전』)

3) (사람이) 몸이 튼튼하고 생김새가 미끈하며 활력에 넘쳐 있다.(『조선말대사전』)

계시다’는 남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어색하게 들린다. ‘안됐다’라는 말은 북한에서는 유감을 나타내는 뜻으로 잘 사용되지만, 남한에서는 남을 동정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유가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할 때는 애도가 아닌 동정을 나타내는 뜻이 되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

- 오래 앓아 계셔야 할 걸 아쉽게도 세상을 떠나셨군요.
- 더 앓아 계실 줄로 알았는데... 참 슬픈 일입니다.
- 참 안됐습니다.

참고 문헌

〈북한 자료〉

1) 교과서

국어 고등중학교 3(2002),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1(2008),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2(2009),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소학교 3(2009),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중학교 1(2004), 교육도서출판사.
 국어 중학교 2(2003), 교육도서출판사.
 문학 고등중학교 6(2002), 교육도서출판사.
 문학 중학교 5(2003), 교육도서출판사.

2) 언어예절 규범서

김동수(1983), 『조선말례절법』,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정용(2005), 『언어생활론』,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10), 『우리 생활과 언어』(제2판),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11), 『우리 말례절법』(제2판), 사회과학출판사.

3) 학술지 및 잡지

고경순(2012), 「사회주의 강성 국가의 체모에 맞는 언어 생활 기풍을 확립하는 데서 녀성들이 지켜야 할 언어례절」, 『문화어학습』, 3호(250).
 길영수(2011), 「부름말을 옳게 사용하려면」, 『문화어학습』, 2호(245).
 김광철(201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언어례절」, 『문화어학습』, 1호(248).
 김철(2012), 「학생들이 지켜야 할 언어례절」, 『문화어학습』, 4호(251).
 김철만(2011), 「존경어의 분류를 통하여 본 우리 인민의 언어례절 풍습」, 『문화어학습』, 2호(245).
 리옥경(2010), 「소학교 학생들이 언어례절을 바로 지키도록 하자면」, 『교원선전수첩』, 1호(388).
 리웅남(2012), 「례절관계 표현의 측면에서 본 우리말의 우수성」, 『문화어학습』, 1호(248).
 리정봉(2011), 「문안 인사말을 잘 하려면」, 『문화어학습』, 4호(247).

- 리현석(2011), 「조선어 부름말 표현 수단의 다양성과 풍부성」, 『문화어학습』, 1호(244).
- 본사기자(2012),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전화례절을 잘 지키자」, 『조선녀성』, 650호.
- 본사기자(2013), 「(사회주의도덕과 생활) 가정을 방문할 때의 례절」, 『조선녀성』, 656호.
- 송윤금(2011), 「식당에서 지켜야 할 언어 례절」, 『문화어학습』, 4호(247).
- 송윤금(2011), 「언어 생활 지도에서 교원의 역할」, 『문화어학습』, 2호(245).
- 안영철(2011), 「부부 사이의 언어 례절」, 『문화어학습』, 1호(244).
- 엄정혜(2011), 「축하할 때와 위로할 때의 언어 례절」, 『문화어학습』, 2호(245).
- 엄정혜(2011), 「사례의 인사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어학습』, 4호(247).
- 저자정보없음(2010), 「[언어례절상식] 말을 주고받을 때 삼가해야 할 12가지」, 『인민교육』, 4호 (641).
- 저자정보없음(2011), 「(상식) 부부사이의 언어례절」, 『조선문학』, 768호.
- 저자정보없음(2011),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존경과 친근감을 나타내는 부름말」, 『천리마』, 630호.
- 저자정보없음(2011), 「례절과 관련한 성구, 속담」, 『교원선전수첩』, 4호(395).
- 저자정보없음(2012), 「길거리에서의 언어 례절」, 『문화어학습』, 1호(248).
- 저자정보없음(2012), 「각이한 상황에서의 부름말」, 『문화어학습』, 2호(249).
- 저자정보없음(2012), 「각이한 대상들과의 언어 례절」, 『문화어학습』, 2호(249).
- 저자정보없음(2012),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전화례절을 바로 지키자」, 『천리마』, 639호.
- 저자정보없음(2012), 「(사회주의도덕과 우리 생활) 전화례절」, 『천리마』, 643호.
- 정광철(2012), 「인사말을 바로 하려면」, 『문화어학습』, 3호(250).
- 정태순(2010),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적 언어 생활의 몇 가지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56-4(443).
- 허영무(2012), 「례의범절을 나타내는 우리말의 문법적 수단」, 『문화어학습』, 4호(251).

〈남한 자료〉

- 고영근(1989),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고영근(2008),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지식의 응용화』, 한국문화사.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국립국어연구원(1992), 『표준화법해설』,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1995), 『남북한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2011), 『표준언어예절』, 국립국어연구원.

- 김광수(2004), 남북한 및 중국조선족 언어에 반영된 문화현상, 중국조선어문, 131,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pp.10-15.
- 김민수(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 1945-1990』, 녹진.
- 김승철(2000), 『북한 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 자료원.
- 남성우, 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생활』, 고려원.
- 문금현(2009), 「한국어 인사 표현의 유형과 특징」, 『세계한국어문학』, 1, 세계한국어문학회, pp.93~122.
- 서정수(1998), 「한국어, 일본어, 영어 및 중국어의 인사말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Greeting Expressions in Korean, Japanese, English, and Chinese」, 『비교한국학』, 4, 국제비교한국학회, pp.13~36.
- 서현석(2009), 「표준화법 개선을 위한 ‘인사말’ 사용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pp.129~152.
- 안태숙 외(2010), 『표준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 이은영(2002), 「남북의 언어예절 전망」,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국학자료원.
- 이옥련(1997), 『남북한의 언어예절』, 박이정.
- 이창덕 외(2009), 『표준화법 개선 및 보완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이화연(2004), 「문화어의 경어법 연구 : 북한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안동대 석사논문.
- 임채욱(1999), 「남북한의 언어예절」, 『극동문제』 239, 극동문제연구소.
- 임채욱(2004), 『북한 문화의 이해』, 자료원.
- 임철성(1996), 「방송극 대사의 계량언어학적 고찰」, 『국어교육』 91, 9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임철성(1997), 「북한의 호칭·지칭 연구」, 『국어국문학』 119.
- 임철성(2009), 「남북 화법 표준화를 위한 한 모색 -호칭과 지칭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 임홍빈(1997), 『북한의 문법론 연구』, 한국문화사.
- 장은하(1997), 「북한의 언어예절」,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태학사.
- 정재영(1991), 「북한의 경어법」, 『새국어생활』 1(3), 국립국어원.
- 조오현(2005), 『북한 언어문화의 이해』, 경진문화사.
- 황병순(1999), 「국어인사말 연구」, 『배달말』25(1), 배달말학회, pp.1~2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립국어원 국어 정보 활용법

권 미 영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립국어원 국어 정보 활용법

II



권 미 영 |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된 정보를 소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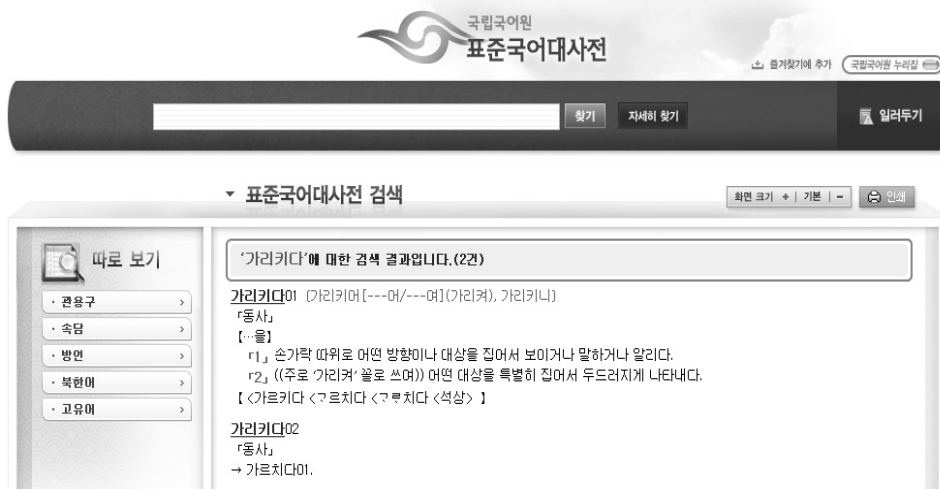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오면 정면에 국어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에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문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적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총 3권의 종이 사전으로 출간되었으며 2001년에는 컴퓨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사전(CD 형태)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2008년에 사전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되고 있는 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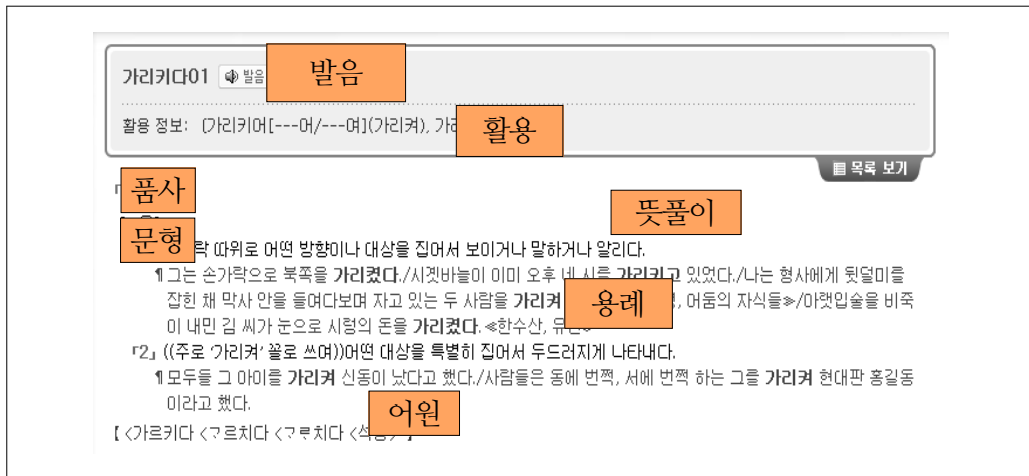
1.1 사전 정보

사전에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실려 있다. ‘가리키다’를 예로 들어 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검색 칸에 ‘가리키다’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가리키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다’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다’와 관련이 있다. 이 둘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01과 02로 나뉜 것이다.

‘가리키다02’는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 가르치다01.”로 되어 있다. 이는 ‘가리키다02’는 ‘가르치다01’로 가리는 뜻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같이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가리키다01'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자.



- 1) 발음 : 단어의 발음을 알려 준다. '가리키다' 옆에 '발음 듣기'를 누르면 그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발음 듣기'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표기와 발음이 다를 경우 단어 옆에 발음을 제시해 두었다.
안다01 [안: 따 / 찻대찰따]
- 2) 활용 정보 :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가 연결되면 모습이나 발음이 바뀌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가리키다'의 어간에 '-어'가 연결되면 '가리키어'가 되고 이것이 '가리켜'로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가리키어'가 [가리키어]나 [가리키예]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려 준다. 이와 달리 명사 뒤에 조사가 연결될 때도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 정보에서 알려 준다.

꽃01 [꽃이[꼬치], 꽃만[꼐]]

- 3) 품사 : 단어의 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품사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4) 문형 : 단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 어떤 문장 성분과 함께 쓰이는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경우 ‘북쪽을 가리키다, 네 시를 가리키다, 사람을 가리키다’ 등과 같이 반드시 ‘~을’과 함께 쓰이므로, 문형 정보에서 【…을】을 제시하고 있다.
- 5) 뜻풀이와 용례 :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단어의 뜻과 그 용례를 알려 준다. 실례 뒤에는 그 출전을 밝혔다.
- 6) 어원 : 단어가 15~17세기 문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 준다. 최초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 하며 그 형태가 바뀌면 함께 제시한다. ‘가리키다’는 “석보상절”에서 ‘ㄹ긔치다’로 처음 나타 났으며, ‘ㄹ긔치다’가 ‘ㄹ르치다’를 거쳐 ‘가르키다’로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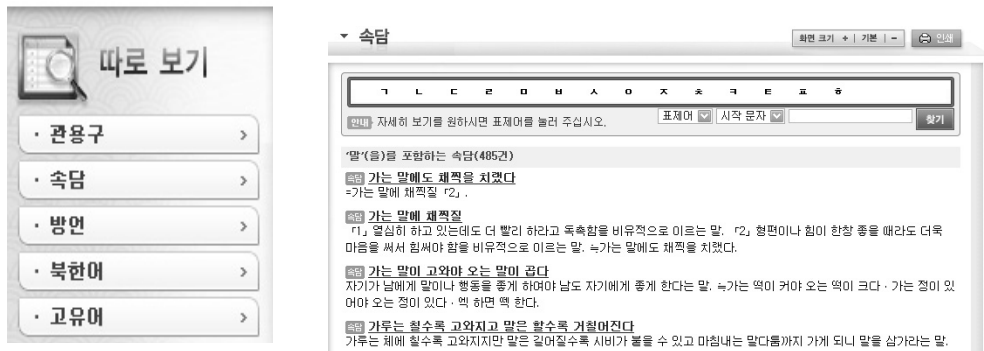
1.2. 사전 검색 방법

누리집에서는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하면 단어를 찾을 때 좀 더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물음표)’는 해당 글자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글자 한 개를 모르면 ‘?’, 글자 두 개를 모르면 ‘??’, 글자 세 개를 모르면 ‘???’처럼 글자 수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달리 ‘*(별표)’는 글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단어들을 찾아준다. 만약 ‘인사말’인지 ‘인삿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말’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만약 ‘인*말’로 검색하면 ‘인’으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 한다. 참고로 ‘?’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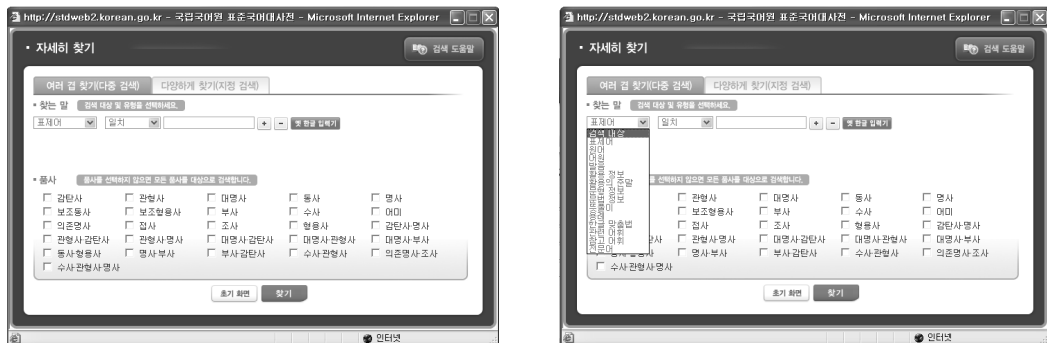
‘인?말’ 검색 결과	‘인*말’ 검색 결과
<div data-bbox="273 1487 598 152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div> <p>인사-말(人事-)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p> <p>인삿-말(人事-) 「명사」 → 인사말.</p>	<div data-bbox="709 1487 1034 152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6건)</div> <p>인말이(姻末) 「대명사」 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姨姪)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육인하(續下).</p> <p>인말02(姻末) 「명사」 「인속」 인사(寅時)의 끝 무렵.</p> <p>인사-말(人事-) 「명사」 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p> <p>인삿-말(人事-) 「명사」 → 인사말.</p> <p>인중지말(人中之末) 「명사」 사람의 세 가운데 가장 못된 것이라는 뜻으로, 때로나 행실이 사람답지 않고 막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p> <p>인중지말(人中之末) 「명사」 사람 가운데 행실이나 인품이 제일 못한 사람.</p>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와 속담, 방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그 속담의 첫 단어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의 일부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도록 속담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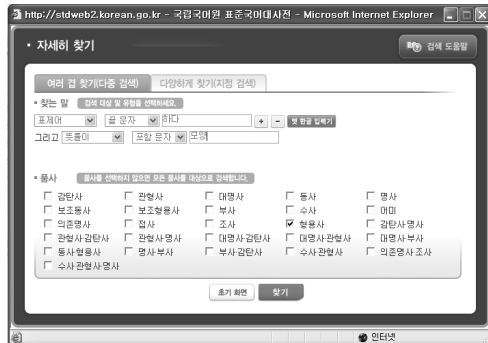
사전 화면 왼쪽에 ‘따로 보기’ 아래에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담’을 누르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표제어’에 ‘포함 문자’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속담을 찾아 준다. 다음은 ‘말’이 들어간 속담을 검색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용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화면으로 들어오면 검색 칸 옆에 ‘찾기’ 단추 외에 ‘자세히 찾기’ 단추가 있다. ‘자세히 찾기’란 검색 대상을 달리하거나 검색 조건을 세분하여 검색하는 기능으로, 이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찾기’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원어, 발음, 뜻풀이, 용례 등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조건도 하나 이상 줄 수 있다. 가령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서 뜻풀이에 ‘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검색할 수 있다.



‘여러 겹 찾기’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160건)

가려-하다(佳麗--)(가 : ---)

『형용사』

‘가’ 모양이나 겹치 따위가 매우 아름다운.

‘가’ 여자의 얼굴이 아름답고 관다.

간찰-하다(幹札--)

『형용사』

도장에 여러 가지로 얹다.

간찰같이-하다(幹札樣--)

『형용사』

갇가지 모양으로 서로 다르다.

교만-하다(傲慢--)

『형용사』

상대, 상대방 따위의 정도가 고라하다.

교묘-하다(巧妙--)

『형용사』

만은 그릇의 모양새가 바르지 못하고 뒤죽박죽이나 찌그러져 불품이 없다.

교태의면-하다(巧態義面--)(교 : -의---/교 : -의---)

『형용사』

꽃 모양이 번갈아가고 있다.

곤곤-하다(困困--)(곤 : ---)

『형용사』

‘곤’ 초록은 큰 물이 울창 울창 넓힐 듯하다.

‘곤’ 물이 솟아오르는 모양이 세차다.

검색 대상을 우선 ‘표제어’로 설정하고 다음 조건은 ‘끝 문자’를 선택한 후 검색 칸에 ‘하다’를 입력한다. 이것은 ‘하다’로 끝나는 표제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를 누르면 검색 조건식이 하나 더 나온다. 두 번째 조건식의 검색 대상을 ‘뜻풀이’로 두고 다음 조건을 ‘포함 문자’로 둔 후 검색 칸에 ‘모양’을 넣는다. 이것은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품사 중 ‘형용사’를 선택한 후 ‘찾기’를 누르면,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가 모두 검색된다.

2 어문 규정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이 네 가지 어문 규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찾기 마당’의 ‘어문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의 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제 1장 총칙	총칙
제 2장 자모	자모
제 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원소리 제2절 구개음화 제3절 ‘ㄷ’ 발행 소리
제 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2절 접사와 및 접두사가 붙는 말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 5장 띄어쓰기	제1절 조사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3절 보조 용언 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 6장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부록	문장 부호

표준어 규정

의 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총칙
제 1장 총칙	총칙
제 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2절 모음 제3절 운말
제 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유어 제2절 한자어 제3절 방언
제2부 표준 발음법	총칙
제 1장 총칙	총칙
제 2장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
제 3장 음의 길이	음의 길이
제 4장 받침의 발음	받침의 발음
제 5장 음의 동화	음의 동화
제 6장 경음화	경음화
제 7장 음의 첨가	음의 첨가

① 외래어 표기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	규정 보기																																												
<p>제1장 표기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한글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 제2항 외래어는 한글은 원칙적으로 1자로 적는다. · 제3항 외래어는 'ㄱ, ㅋ, ㆁ, ㄷ, ㅌ, ㄴ'으로 적는다. · 제4항 외래어 표기법은 한글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발음대로 적는다. ·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행을 존중한다. 그 발음이 음계는 따로 정한다. 	<p>제2장 표기방법</p> <table border="1"> <tr> <td>→ [외]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td><td>→ [외] 스웨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에스페란토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 [외] 노르웨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이탈리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 [외] 덴마크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등의 고대 그리스어</td><td>→ [외] 핀란드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중국어의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 [외] 라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불교의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 [외] 라트비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베트남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 [외] 루마니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세르비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 [외] 포르투갈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슬로바키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 [외] 헝가리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슬로베니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 [외] 러시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r> <tr> <td>→ [외] 우크라이나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td><td></td></tr> </table> <p>제3장 표기세칙</p> <table border="1"> <tr> <td>→ 제1절 발음의 표기</td><td>→ 제1절 발음의 표기</td></tr> <tr> <td>→ 제2절 자음의 표기</td><td>→ 제2절 자음의 표기</td></tr> <tr> <td>→ 제3절 모음의 표기</td><td>→ 제3절 모음의 표기</td></tr> <tr> <td>→ 제4절 받침의 표기</td><td>→ 제4절 받침의 표기</td></tr> <tr> <td>→ 제5절 어미의 표기</td><td>→ 제5절 어미의 표기</td></tr> <tr> <td>→ 제6절 어휘의 표기</td><td>→ 제6절 어휘의 표기</td></tr> <tr> <td>→ 제7절 문장의 표기</td><td>→ 제7절 문장의 표기</td></tr> <tr> <td>→ 제8절 로마자의 표기</td><td>→ 제8절 로마자의 표기</td></tr> <tr> <td>→ 제9절 한글의 표기</td><td>→ 제9절 한글의 표기</td></tr> <tr> <td>→ 제10절 국어의 표기</td><td>→ 제10절 국어의 표기</td></tr> <tr> <td>→ 제11절 국어의 표기</td><td>→ 제11절 국어의 표기</td></tr> </table>	→ [외]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 [외] 스웨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에스페란토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노르웨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이탈리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덴마크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등의 고대 그리스어	→ [외] 핀란드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중국어의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라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불교의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라트비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베트남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루마니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세르비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포르투갈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슬로바키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헝가리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슬로베니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러시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우크라이나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제1절 발음의 표기	→ 제1절 발음의 표기	→ 제2절 자음의 표기	→ 제2절 자음의 표기	→ 제3절 모음의 표기	→ 제3절 모음의 표기	→ 제4절 받침의 표기	→ 제4절 받침의 표기	→ 제5절 어미의 표기	→ 제5절 어미의 표기	→ 제6절 어휘의 표기	→ 제6절 어휘의 표기	→ 제7절 문장의 표기	→ 제7절 문장의 표기	→ 제8절 로마자의 표기	→ 제8절 로마자의 표기	→ 제9절 한글의 표기	→ 제9절 한글의 표기	→ 제10절 국어의 표기	→ 제10절 국어의 표기	→ 제11절 국어의 표기	→ 제11절 국어의 표기
→ [외]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 [외] 스웨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에스페란토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노르웨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이탈리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덴마크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등의 고대 그리스어	→ [외] 핀란드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중국어의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라틴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불교의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라트비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베트남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루마니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세르비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포르투갈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슬로바키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헝가리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슬로베니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러시아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외] 우크라이나어 자음과 한글 대조표																																													
→ 제1절 발음의 표기	→ 제1절 발음의 표기																																												
→ 제2절 자음의 표기	→ 제2절 자음의 표기																																												
→ 제3절 모음의 표기	→ 제3절 모음의 표기																																												
→ 제4절 받침의 표기	→ 제4절 받침의 표기																																												
→ 제5절 어미의 표기	→ 제5절 어미의 표기																																												
→ 제6절 어휘의 표기	→ 제6절 어휘의 표기																																												
→ 제7절 문장의 표기	→ 제7절 문장의 표기																																												
→ 제8절 로마자의 표기	→ 제8절 로마자의 표기																																												
→ 제9절 한글의 표기	→ 제9절 한글의 표기																																												
→ 제10절 국어의 표기	→ 제10절 국어의 표기																																												
→ 제11절 국어의 표기	→ 제11절 국어의 표기																																												

‘어문 규정’에는 각 어문 규정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가령 ‘한글 맞춤법’의 ‘제6절 겹쳐 나는 소리’를 누르면 ‘겹쳐 나는 소리’와 관련된 조항인 제13항이 나온다. 그런데 조항을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있으나, 왜 그렇게 쓰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조항마다 ‘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조항 아래에 있는 ‘해설 보기’를 누르면 왜 그렇게 쓰는지 그와 비슷한 다른 단어는 어떻게 쓰는지 설명되어 있다.

②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특히 보기

제1절 단소리 제2절 구개음화 제3절 'ㄴ' 받침소리 제4절 모음 제5절 두음 법칙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배함.)

ㄱ	ㄴ	ㄱ	ㄴ
막막	막막	꽃꽃하다	꽃꽃하다
책책	책책	놀놀하다	놀놀하다
씩씩	씩씩	눅눅하다	눅눅하다
똑똑똑똑	똑똑똑똑	밋밋하다	밋밋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하다	씩씩하다
연연불망(延延不忘)	연연불망	쌔쌔하다	쌔쌔하다
유유상종(優優相從)	유유상종	쌔쌔하다	쌔쌔하다
누누이(踰踰)	누누이	잡잡하다	잡잡하다

해설 보기

③ 로마자 표기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로마자 표기법

용례 찾기

규정 보기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방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ㅑ	ㅕ	ㅛ	ㅟ
a	eo	o	u	eu	i	ae	o	oe	wi

1. 이중모음

ㅑ	ㅓ	ㅗ	ㅜ	ㅡ	ㅣ	ㅑ	ㅕ	ㅛ	ㅟ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i

④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찾기 마당 >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특히 보기

제1절 단소리 제2절 구개음화 제3절 'ㄴ' 받침소리 제4절 모음 제5절 두음 법칙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배함.)

ㄱ	ㄴ	ㄱ	ㄴ
막막	막막	꽃꽃하다	꽃꽃하다
책책	책책	놀놀하다	놀놀하다
씩씩	씩씩	눅눅하다	눅눅하다
똑똑똑똑	똑똑똑똑	밋밋하다	밋밋하다
씩씩씩씩	씩씩씩씩	씩씩하다	씩씩하다
연연불망(延延不忘)	연연불망	쌔쌔하다	쌔쌔하다
유유상종(優優相從)	유유상종	쌔쌔하다	쌔쌔하다
누누이(踰踰)	누누이	잡잡하다	잡잡하다

해설 보기

‘막막, 책책’ 등은 의성어 ‘막, 책’이 겹쳐진 형태(疊語)이며, 한자어 ‘연연(延延), 유유(優優), 누누(踰踰)’ 등도 겹쳐진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런데 ‘꽃꽃하다, 놀놀하다’ 등에서의 ‘꽃, 놀’ 따위는 의미적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한쪽 예시어와 오른쪽 예시어) 유형이 마찬가지로 동일 음절, 혹은 유사 음절이 중복되는 형식이므로, 본 항에서 함께 다루었다.

다만,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는 제13항 불림 1 규정을 적용하면 연연(不連), 유유(不連), 누누(不連)로 적을 것이지만,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연:연:], [유:유:], [누:누:]로 굳어져 있는 것이므로, 발음 형식을 위하여 ‘연연-, 유유-, 누누-’로 적기로 한 것이다. 이런 예로 ‘노노법사(老老法師), 요요무문(謬謬無門), 요요(謬謬)’ 등도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는 (제2 음절 이하에서) 본들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남랑(南郎)하다	남령(南令)하다	녹륙(綠綠)하다
능릉(陵陵)하다	연년(年)하다	념념불망(念念不忘)
역역(歷歷)하다	인련(纒纒)하다	적나라(赤赤)하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규정을 찾아 직접 표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용례 찾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원어나 한글 표기를 넣고 ‘찾기’를 누르면 원어의 바른 한글 표기를 알려 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로마자로 표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그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려 준다.

외래어 표기법

첫화면 > 찾기마당 > 어휘, 용어정보 > 외래어 표기법

용례 찾기		
규정 보기		
전체		
검색결과: 49651건		
번호	원어 표기	한글 표기
49651	Torres (Casanova), Sandra	토레스 (카사노바), 산드라
49650	Kirch, Leo	키르히, 레오
49649	Chávez (Frias), Adán	차베스 (프리아스), 아단
49648	朱民(Zhu Min)	주민
49647	Swayze, Patrick (Wayne)	스웨이즈, 패트릭 (웨인)
49646	Sandberg, Sheryl	샌드버그, 셰릴
49645	Mujawar, cAli Muhammad (통용 로마자: Ali Muhammad) 아랍 어형: علي محمد المجور	무자위르, 알리 무함마드
49644	Murray, Douglas	머리, 다글러스
49643	Murdoch, James (Rupert Jacob)	머독, 제임스 (루퍼트 ·제이콥)
49642	Niemi, Lisa	니에미, 리사

로마자 표기법

첫화면 > 찾기마당 > 어휘, 용어정보 > 로마자 표기법

용례 찾기		
규정 보기		
전체		
번호	우리말	로마자 표기
12803	가경동	Gagyeong-dong(O) Kageong-dong(X) Gakyeong-dong(X) Kagyōng-dong(X)
12802	가계 해수욕장	Gagye beach(O) Kagye beach(X)
12801	가계	Gagye(O) Kakyē(X) Kagye(X)
12800	가곡	gagok(O) Gagok(X) kagok(X) gakok(X) kakok(X)
12799	가곡동	Gagok-dong(O) Kagok-dong(X) Gakok-dong(X) Kakok-dong(X)
12798	가곡면	Gagok-myeon(O) Kagok-myeon(X) Gakok-myeon(X) Kakok-myeon(X) Kagok-myeon(X)
12797	가교비	Gagyobi(O) Gakyobi(X) Kagyobi(X) Kakyobi(X)
12796	가금면	Gageum-myeon(O) Kageum-myeon(X) Gakeum-myeon(X) Kagūm-myeon(X)
12795	가나안	Ganaan(O), Kanaan(X)
12794	가남면	Ganam-myeon(O) Kanam-myeon(X) Kanam-myeon(X)

3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이란 어문 규범이나 어법,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곳이다. 가령 ‘가십시오’가 맞는지 ‘가십시요’가 맞는지 궁금할 때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날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다. 화면 윗부분에 있는 검색 칸에서 ‘질문 제목’이나 ‘질문 내용’을 설정한 후에 ‘가십시오’나 ‘가십시요’를 넣고 검색하면 ‘가십시오/가십시요’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검색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있다.

2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첫화면 > 문의응답 >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이곳은 주로 규범이나 어법,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곳입니다.
간단한 사항은 가나다 전화 1599-9979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두 단어 조합 검색 방법 : 단어와 단어 사이에 AND 를 삽입(예 : 가 AND 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 자료 보기

질문내용 ▼ 가답사료

평가

전체

옛 한글 사용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바른표기	박가영	2010.02.08.	17
	낱말로 가십시오, 오십시오	온라인가나다	2010.02.09.	17
3	문익드립니다.	박희숙	2008.12.26.	19
	낱말로 -십시오 (맞춤법)	이수연	2008.12.29.	19
2	안녕히 가십시오/사요	이강길	2008.02.25.	116
	낱말로 -십시오 (맞춤법)	임현열	2008.02.26.	116
1	종결형어미에 '-요' 사용을 허용합니까?	홍미균	2007.12.20.	187
	낱말로 안녕히 가십시오. (맞춤법)	국립국어원	2007.12.21.	187

<< 처음으로 < 이전 1 다음 > 끝 >>

글쓰기

답변 제목: 가십시오, 오십시오

작성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자 2010.02.09.

안녕하십니까?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가다, 오다'의 어간 '가-, 오-' 뒤에 '-십시오'를 붙여 '가십시오./오십시오.'와 같이 적습니다. 종결 어미 '-셔요'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형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방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안 남기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국립국어원은 '가나다 전화(1599-9979)'라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다 전화로 전화해서 국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보면 상담원이 바로 답을 알려 준다.

그리고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에 들어오는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 300여 개를 모아 '자주 나오는 질문'에 정리해 놓았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는 '로서'와 '로써'의 차이, '들려서/들리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있음/있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부끄하는 요령이나 단자 쓰는 법, 세배 인사법 등 국어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3 자주 나오는 질문

첫화면 > 문의응답 > 자주 나오는 질문

궁금하신 단어를 검색함에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 를 이용해 주세요

번호	첨부	제목	작성일	조회
9	로서와 '로써'의 차이		2000.05.31.	14371
8	'전구 집에 들러서/들리서'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31.	10682
7	'고마워요'와 '고맙습니다'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2940
6	'있음'과 '있슴'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5871
5	'곤색'이 잘못된 말입니까?		2000.05.29.	12953
4	'끼어들기'와 '끼어들기' 중 맞는 표기는?		2000.05.29.	14443
3	수미편은 '날으는' 것입니까, '나는' 것입니까?		2000.05.29.	13658
2	'네'와 '예'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5889
1	'너머'와 '넘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2000.05.29.	24738

<< 처음으로 < 이전 41 42 43 다음 > 끝 >>

3 자주 나오는 질문

첫화면 > 문의응답 > 자주 나오는 질문

궁금하신 단어를 검색함에 입력하시면 입력하신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 를 이용해 주세요

번호	첨부	제목	작성일	조회
429	부끄하는 요령		2008.01.21.	6653
428	편지 봉투 쓰는 법 ①		2008.01.21.	4798
427	철순 간치의 속익금 봉투와 단자		2008.01.21.	2642
426	조위금 봉투와 단자		2008.01.21.	3073
425	편지 봉투 쓰는 법 ②		2008.01.21.	2480
424	편지 봉투 쓰는 법 ①		2008.01.21.	3061
423	문상 갔을 때 인사말		2008.01.21.	5608
422	장년 퇴임 때 인사말		2008.01.21.	3189
421	병문안 갔을 때 인사말		2008.01.21.	4461
420	묵은세배		2008.01.21.	2684

<< 처음으로 <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끝 >>

4 공공 언어 지원

4.1. 순화어와 ‘우리말 다듬기’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바꾸어 쓰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를 ‘순화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순화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첫 화면의 ‘찾기 마당’을 누른 후에 ‘어휘·용어 정보’에서 ‘순화어’로 들어오면 된다.

순화어 자료 역시 검색이 가능하다. 가령 순화 대상어로 ‘나시’를 찾으면 ‘나시, 소테나시, 에리나시’ 등이 검색된다. ‘나시’에 들어가면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순화한 용어만 쓸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즉 ‘나시’, ‘소테나시’를 쓰지 말고 ‘민소매’를 써야 한다는 뜻이다.

순화어 첫화면 > 찾기마당 > 어휘·용어정보 > 순화어

1991년 순화자료집(1977~1991 종합)부터 2002년 순화자료집까지 21,000여 개의 순화어를 포함한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2003년)과 2005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해 순화한 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순화대상어: 나시 찾기 전체 관장 순화어 보기 규정보기

번호	순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권장
4	나시	← そやなし일..	민소매	
3	소테나시	袖なし, そやなし..	민소매(옷)	
2	에리나시	襪なし	민것	
1	에리나시	襪なし, えりなし일..	민것	

« 이전 < > 다음 »

나시
순 화 어: 민소매
원 어: ← そやなし일
순 화 정 도: ×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의 미/용례: 패션 디자인
비 고: 국연1999(고시)

순화어에는 ‘나시’처럼 순화한 용어만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과 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가드
순 화 어: 수비수
원 어: guard
순 화 정 도: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의 미/용례: 운동경기(핸드볼)
비 고: 국연2001

가세
순 화 어: 집안 형편
원 어: 家勢
순 화 정 도: ○ :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모두 쓸 수 있음
의 미/용례: 행정
비 고: 국연1992

최근 인터넷에 오르는 글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외래어가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 풀 옵션, 시스루, 플래시몹’ 등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16	'롤 모델(role model)'은 '본보기상'으로	우리말	2011.07.05.	140	5
315	'포커 페이스(poker face)'는 '무표정'으로 (17)	우리말	2011.06.21.	346	6
314	'바리스타(barista)'는 '커피전문가'로 (29)	우리말	2011.06.07.	557	12
313	'오버 페이스(over pace)'(하디)'는 '무리(하디)'로 (20)	우리말	2011.05.24.	695	26
312	'킬(all kill)'은 '죽이기'로 (116)	우리말	2011.05.10.	1828	93
311	'러브 샷(love shot)'은 '사랑관해'로 (42)	우리말	2011.04.26.	1418	15
310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갈장술부'로 (3)	우리말	2011.04.12.	1407	10
309	'레코 드라이브(rec-drive)'는 '친환경출발'으로 (1)	우리말	2011.03.29.	996	50
308	'로하스(LOHAS)'는 '친환경살아'로 (4)	우리말	2011.03.15.	938	4
307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정보무늬'로 (3)	우리말	2011.03.01.	1238	5
306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는 '관광취업'으로 (10)	우리말	2011.02.15.	844	2
305	'블랙먼 슈머(black consumer)'는 '의덕소비자'로 (1)	우리말	2011.02.01.	942	3
304	'롄칭쇼(launching show)'는 '신제품 발표회'로 (10)	우리말	2011.01.18.	899	5
303	'스키니진(skinny jeans)'은 '협시형바지'로 (10)	우리말	2011.01.04.	1700	7
302	'PL(Private Label)상품'은 '자체기획상품'으로 (3)	우리말	2010.12.21.	924	4
301	'와이파이(Wi-Fi)'는 '근거리무선망'으로 (9)	우리말	2010.12.08.	1819	10
300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공동구매'로 (3)	우리말	2010.11.23.	1337	10
299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공동주택'으로 (3)	우리말	2010.11.09.	1181	9
298	'멀티탭(multi-tap)'은 '모뎀'으로 (7)	우리말	2010.10.27.	1719	18
297	'슬로시티(slow city)'는 '항상'으로 (4)	우리말	2010.10.12.	1336	12
296	'선루프(sunroof)'는 '지붕'으로 (9)	우리말	2010.09.28.	16241	12

‘우리말 다듬기(www.malteo.go.kr)’에서는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과 바꾼 단어를 알리는 일을 한다. 이곳에서는 다듬고 싶은 말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바꾼 단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듬을 말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4.2. 공공언어 지원 요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 기관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책 용어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공공언어 지원’이라는 누리집을 만들었다. 이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지원’을 요청하면 각 기관에서 다듬고 싶은 말이나 문장을 다듬어 준다.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www.korean.go.kr/publang)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질의응답’ 아래에 있으며, 첫 화면 오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공공언어 지원을 받고 싶으면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에 들어와 요청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 공공 언어 지원 사업은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원 요청시 신청인이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실명 확인을 한다.

실명 확인을 한 후에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가 ‘날말’인지 ‘문장’인지 선택하면 된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를 원하면 화면의 요청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대로 작성하면 되고, 문장의 교열이나 교정을 받고자 하면 작성한 문장을 파일로 올리면 된다.

공공언어 지원

1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

이해 요청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언어를 다듬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 등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요청 서식(내려받기)을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정부에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용이 단어가 아니고,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따로 파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본 시일 안에 처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요청 서식(내려받기)

개인 인증 ☒ 실명확인 ☐ 공공 I-PIN ☐ 확인

작성자 * 개인 인증 확인 후 작성자는 자동 입력 됩니다.

소속

전자우편 @ 이메일 직접입력

전화번호

공제유무 ☒ 공제 ☐ 비공제

목적

분야 ☒ 날말 ☐ 문장 ☐ 그 밖

공공언어 지원

2 지원 요청 현황

전체 100 페이지

번호	제목	분야	작성자	신청일	상태	조회
142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비공제]	문장	박익형	2011-07-15	완료	0
141	조선체육회 창립허서 현대식 표기에 대한 검토 요청 [비공제]	날말	주용범	2011-07-15	진수	2
140	조례 제정권 관청에서 사용용어 작성여부 검토요청 [비공제]	날말	김숙경	2011-07-13	완료	0
139	한국남북발전 환경화학설비 운영 한글화 변경 의뢰 [비공제]	날말	김수경	2011-07-13	완료	0
138	"상문"을 써도 되는 건지 [비공제]	날말	김정재	2011-07-12	완료	0
137	당행문송박물관 설명화날 검토요청	문장	이상원	2011-07-11	완료	3
136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	그 밖	김준숙	2011-07-07	완료	13
135	전시를 위한 검토 요청 [비공제]	그 밖	김영호	2011-07-06	완료	0
134	조국헌법 전시 관련 내용 검토 [비공제]	문장	김희봉	2011-07-06	완료	0
133	통계청 통계용어 번역 등 순화 및 변경이 필요한 언어 자료 요청서 건 [비공제]	그 밖	박경아	2011-07-05	완료	0

이전 다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5 강의 지원

5.1.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어문화학교(<http://edu.korean.go.kr>)’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국어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성인 30명 이상이 모여 2시간가량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중앙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군 부대 등 어떤 기관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강의로, 강사 여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국립국어원이 모두 부담한다.

5.2. 온라인 강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어문 규정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배움 마당’의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새터민 발음 교육’은 새터민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다. 새터민의 발음과 억양은 남한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새터민을 위해 다른 발음이나 억양을 중심으로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 볼 수도 있다.

6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있다. 한글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한글의 탄생과 역사, 아름다운 한글, 생활 속 한글, 한글과 교육, 한글의 진화와 미래)을 운영하고 있다.



‘한글의 탄생과 역사’에서는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준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 주며, 세계 여러 문자의 역사도 소개한다.

‘아름다운 한글’에서는 글자의 모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글의 자형의 변천 과정과 한글 글꼴 개발의 역사를 설명하고, 다양한 글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글꼴 개발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생활 속 한글’에서는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주제로 한 한글 관련 문헌을 전시한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한글 문헌과 사회상을 반영한 한글 문헌을 소개한다.

‘한글과 교육’에서는 한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문 규범과 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 국어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된다.

‘한글의 진화와 미래’에서는 한글의 모습과 사용 양상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여 준다. 한글의 세계화와 기계화, 국어 정보화 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어문 규정을 소개하고 남북한 언어도 비교해 놓았다.

이 외에 ‘학술 정보관’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한글 관련 문헌들을 정리한 곳이다. 한글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문헌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한글 문헌 통합 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7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을 위한 교재	한국어 기본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
<p>1.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4</p> <p>▶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 학습을 통해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 주안점: 수잔의 가족과 세 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이것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며,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사용하여 구성</p>		
<p>함께하는 한국어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 교재 전자책 보기 음성 자료(MP3) 내려받기 (553) 	
<p>함께하는 한국어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 교재 전자책 보기 음성 자료(MP3) 내려받기 (231) 	

국립국어원 누리집 ‘배움 마당’의 ‘한국어 교육’에 들어오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기본 교재’, ‘이주민을 위한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로 나뉜다. 한국어 교사이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건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교재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면 ‘한국어 세계화재단(www.glokorean.org)’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는 일과 한국어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일 외에 온라인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8 국립국어원 자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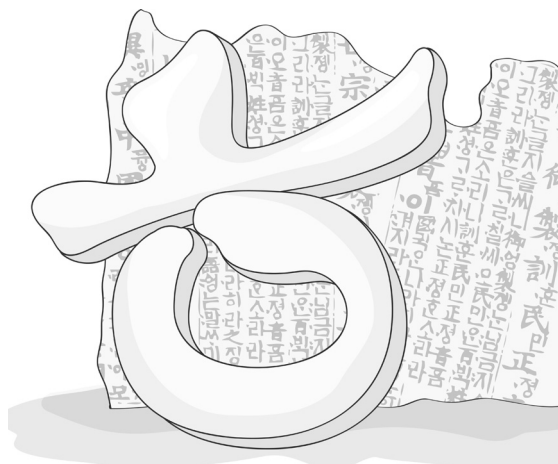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자료실에서는 국립국어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된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나 우리말 순화 내용 등을 모두 제공한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계간지인 ‘새국어생활’과 온라인 소식지인 ‘쉽표, 마침표’는 누리집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신청하면 전자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illegible]

<p>국어원 소식지 +</p>  <p>제 70호 심포, 마침표.</p>	<p>장기간행물 +</p>  <p>21권 제2호(여름) 새국어생활</p>	<p>국어 연감 +</p>  <p>2010년 국어 연감</p>
--	--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현장 정보 공유 및 토론



제8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사 연수회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현장 정보 공유 및 토론〉



1. 선생님께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소속기관, 경력, 주 담당 업무 분야 등)
2. 평소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소통하면서 언어적 측면으로 가장 힘드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실제 현장에서 유용했던 관련 지원 정책, 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재 등이 있으십니까?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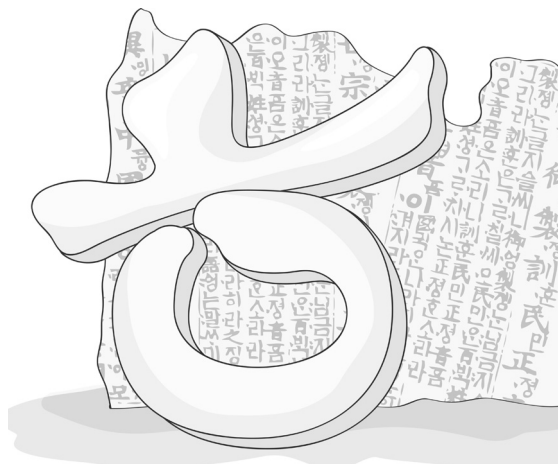
4. 이번 연수회 참여 전, 국립국어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언어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셨던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앞으로 국립국어원에 바라는 언어(표준어 적응) 지원 관련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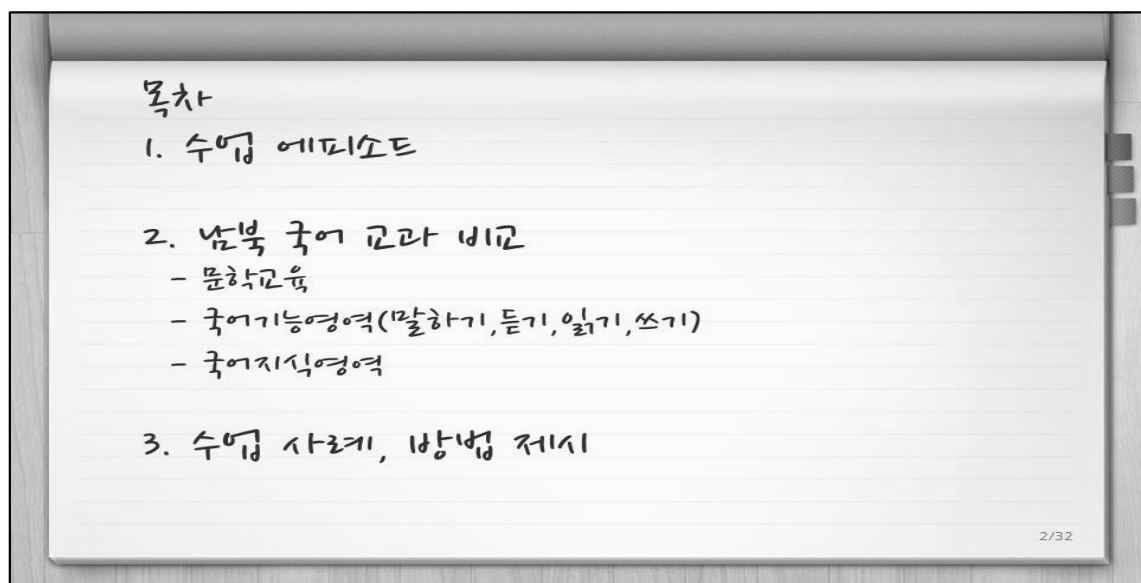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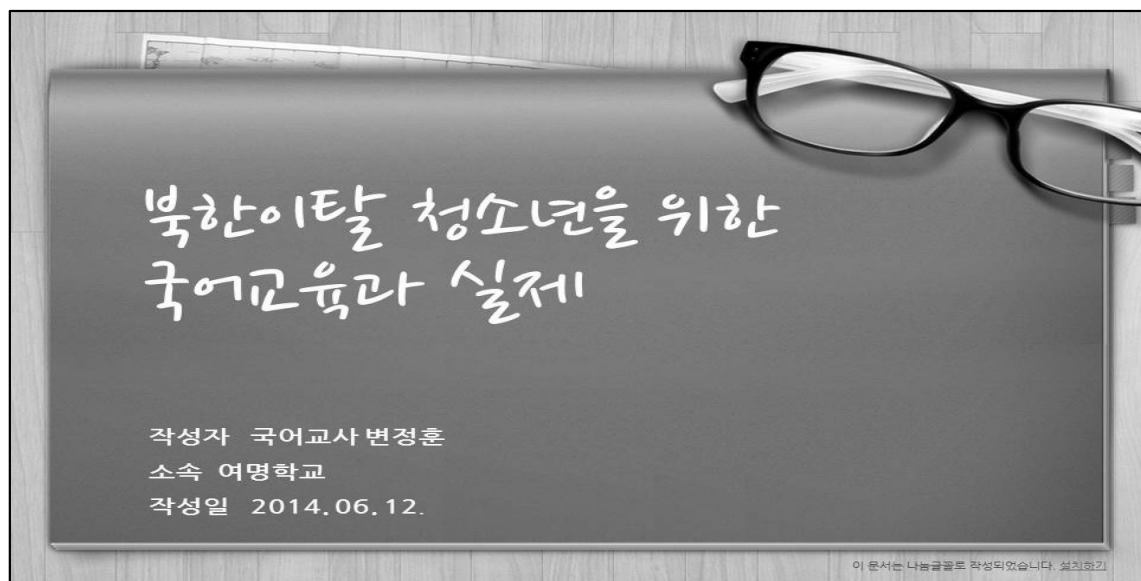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육과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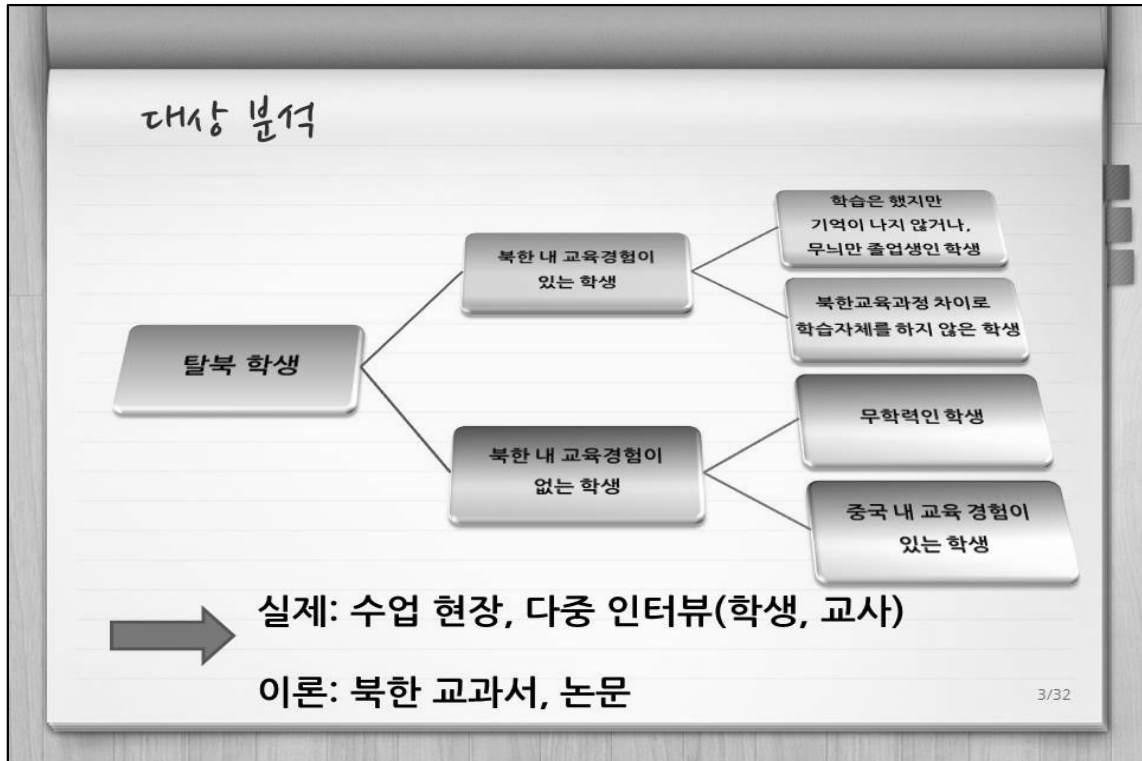
변정훈 | 여명학교 교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육과 실제

변정훈 | 여명학교 교사





- 1. EPISODE(수업)**
1. '서사, 비교, 대조, 연민, 체득...'이 뭐예요?
 2. 전래동화 배우는 고등학교 국어시간
 3. 한글을 만든 인민들?
 4. '얼음보숭이, 단묵'이 뭐예요?
 5.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틀린 속담?
- 4/32

1. EPISODE(수업)

제3장. 리조전반기의 국어

리조전반기의 국어는 15~16세기의 국어를 넘두에 둔다.
이 시기에 고유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우리
민족어는 새로운 발전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1절. 훈민정음과 그 자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삼국시기부터 리두문자를 사용하여오면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232~233페이지)
세나라시기부터 써오던 리두식서사체제는 원래 우리 말에 맞지
않으며 글자자체가 어려운 한자에 기초하고있었으므로 우리 말을
쉽게 적어낼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잘 나타내고 우리 인
민이 누구나 쉽게 배워 쓸수 있는 자기 민족의 고유한 글자를
만들때 대한 요구가 절실하게 제기되었다.
리조봉건통치배들도 어려운 한문이나 리두만으로써는 국가관리문
서를 제대로 다룰수 없었기때문에 익히기 쉽고 다루기 편리한 민

5/32

1. EPISODE(시험)

1. 다음 중 국어정서법(맞춤법, 띄어쓰기)이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시오.

“나의다짐은 이다음에 해빛과 같은 좋은기회가 생기면
두고두고 잊지못할 추억을 만들겠다는 것이였다.”

- 고등중학교 2학년 교과서 본문 중

2. 학생들이 글쓰기자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해주시니, 통일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후원자분들이 저의 등을 툭툭 두두려 주시니 정말 조았어요.
이렇게 하찬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3. 위 시 '서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뜻을 2음절
(두글자)로 쓰시오.

- 정답: 자아 ()

6/32

1. EPISODE(시험)

3.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1. 아버지, 2. 비빔밥, 3. 김밥, 4. 생고기, 5. 날생선

- 여명학교 중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 중

4.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5. 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6.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7. 주관식2. 설명의 방법 중, 그림을 그리듯 설명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7/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1. 남한과 의도적으로 차별화된 언어정책

- 남(신라어 정통설) VS 북(고려어 정통설)

2. 남(미국 영향권 언어생활) VS 북(중국, 러시아 영향권 언어생활)

3. 사상성과 도구교과적 성격

4. 북한의 교수방법

- 깨우쳐주는 수업

- 문답식 교육

- 항일유격대식 학습법

- 긍정감화교육

8/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너희들 이리로 오너라.》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학생들의 손에는 삽이며 곡괭이가 쥐여있었다.

《그래 너희들은 미국놈의 비행기폭격이 심한데 어데에 갔다오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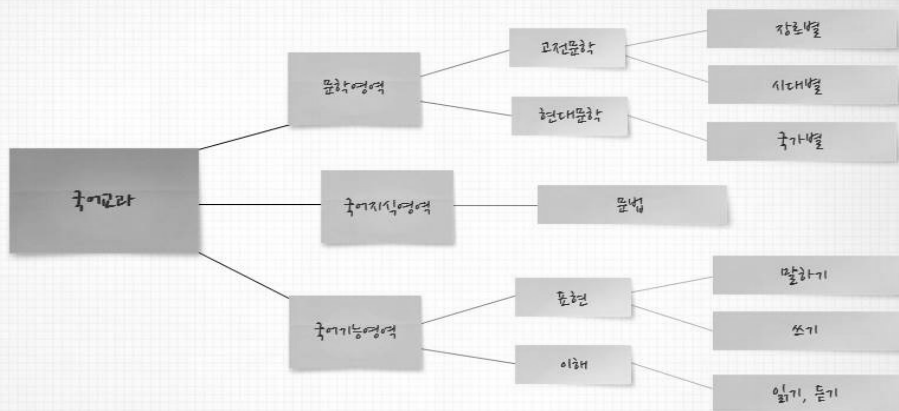
불비속을 헤쳐가시는 자신의 안녕보다 산골마을아이들을 먼저 녀려해주시는 아버이 수령님이시였다. 온정어리신 그이의 물으심에 눈시울이 뜨거워진 한 소년이 잠시 머 못거리다가 미제날강도놈들의 폭격에 마사진 령길을 닦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니 너희들이 닦아놓은 길로 우리가 제일 먼저 온셈이로군.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꼬마들까지 전선원호사업을 도와나서는데 미국놈들이 견디여낼게 무어냐. 참 용 쿠나.》

- 고등중학교 2학년 14단원 '사랑의 길' 54p

9/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남한 문학교육



10/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남한 문학교육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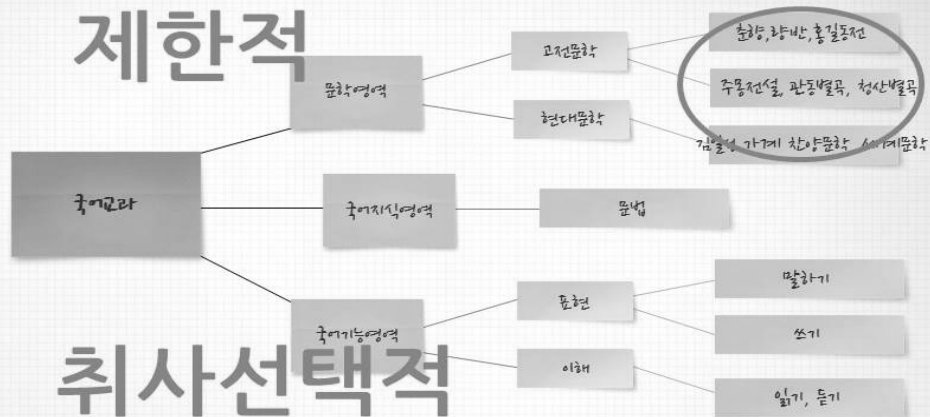
다양하다



11/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북한 문학교육

제한적



취사선택적

12/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문학교육

1. 수업 시간

- 고등중 1~3학년 국어(365시간), 문법(105시간)
- 고등중 4~6학년 문학(225시간)

2. 도구적, 사상적 고전 문학 선택

- 주몽전설, 을밀장군과 을밀대: 고구려 정통성 계승 교육 목적
- 홍길동전, 양반전: 봉건제, 지주계급에 대한 비판 목적
- 춘향전: 수탈 계급비판
- 심청전: 양반 지주의 수탈에도 호심을 잃지 않는 인민성 강조

13/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문학교육

3. 세계문학

- 러시아 고리키 의 ‘어머니’
- 톨스토이 의 ‘부활’
- 중국 양말 의 ‘청춘의 노래(피어라 들꽃)’
- 루쉰 의 ‘축복’

14/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문학교육

동무들은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곳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적의 심장을 짓밟을수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시를 잘 읊자면 어떤 형식의 시를 읊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가 무엇을 노래하고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아버지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노래한 시인가, 아버지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노래한 시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시인가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려고 한 사상적 알맹이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시에 담겨진 사상감정을 살려 잘 읊을수 있다.

- 고등중학교 2학년 7단원 '시를 잘 읊자면' 11~12p

15/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문학교육

아버지(대)원수님 v (해)빛아래서//

강하게 강조해서 읽어야할 부분과, 띄어읽고, 끊어 읽어야할 부분, 그리고 의문문의 토 '~오랴, ~거냐'는 중간음으로, 서술문의 토 '~여라, ~노라' 등은 낮은 음으로 끄는것이 기본이며, 느낌말 '아, 오'를 잘 써야하고, 아버지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몹시 감동되었을 때의 '아'는 성대를 얼마 울리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 목구멍소리비슷하게 길게 뽑아 느낌을 나타낼수 있다. 끝으로 시는 행동과 표정을 잘 결합하여 읊어야 한다. 그리고 표정도 잘 지어야 한다. 행동과 표정은 만 들어내지 말고 스스로 우러나오게 하여야 한다.

- 고등중학교 2학년 7단원 '시를 잘 읊자면' 11~12p

16/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문학교육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 학생들이 금강산이나 소년단야영소에 갔다왔으면 금강산에 가서 등산할 때나 소년단야영생활을 하는 과정에 보고 느낀것을 가지고 기행문을 쓰게 할수 있습니다. »

‘기행문이란 아버지대원수님과 친애하는 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일들을 생동하게 적은 글이다’

- 고등중학교 2학년 5단원 ‘견학, 답사와 기행문 쓰기’ 17p

17/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국어기능영역

1. 한정적인 영역의 읽기 교육

2. 남(이해, 표현 중시) VS 북(사상, 감동 중시)

1	꿈을 찾는 여행	14
	(1) 꿈을 소개합니다	22
	(2) 자신만의 꿈과도를 그려라	
	주요 학습 내용	
	• 꿈이란 미래를 향하여 지니고자 하는	
	• 변할 수 있는 이상을 말한다	
2	삶의 언어, 문학	42
	(1) 고령(高靈) _ 백석 / 안중(安中) _ 윤선도	49
	(2) 쉽게 깨어진 시 _ 윤동주 / 산에 언덕에 _ 신동엽	56
	(3) 깨달음의 열 무렵 _ 이효석	
	주요 학습 내용	
	• 문학의 보편성 및 효용 이해	
	•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 파악	
3	세상을 보는 눈	82
	(1) 다문과 사회를 위한 노력	91
	(2) 저술산 문제와 대처 방안 _ 조종식	
	주요 학습 내용	
	• 명승의 특성을 살펴 보도록 제재하기	
	• 자신의 관점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사명 쓰기	
4	사람이 아름답다	106
	(1) 트럭 아저씨 _ 박완서 / 연 _ 무선	118
	(2) 눈길 _ 이창준	
	(3) 간성(杆城) 전형필(全炯必) _ 한국방송 한국사전(韓)	

④ 국어: 중학교 1학년(2004년)의 교과서 차례

1. 불후의 고전적 명작 <나의 어머니>
2. 꼬마보초병
3. 자동차는 전선으로 달린다
4. 우리도 한마음
5. 백리향
6. 백두대령고향집
7. 달나라만리경
8. 어머니의 고향을 자취에 두시고도
9. 충성의 한마음 변함 없으리
10. 내 나라 제일로 좋아
11. 기관총
12. 조선의 제일봉
13. 우리 집의 경사
14. 그리운 정을 동무에게
15. 어느 날 저녁
16. 담요
17. 길이 빛나라 영광의 땅 포항이여
18. 사랑의 그네
19. 신기한 종이장
20. 성황이처럼
21. 어린 동무 노래 부르자
22. <모사각을 나에게로>
23. 다시 한 번

18/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국어기능영역

한하늘아래 있건만
어버이수령님 가꾸신 사랑의 화원이
함께 피지 못한 겨레들
락원의 지붕밖에서
미제침략자의 발밑에 짓밟히고
파쑸무리들의 총칼에 쓰러지고
아, 사무친 원한은 저 하늘에 닿았구나.

연습활동. 《사랑의 화원, 함께 피지 못한 겨레》를 넣어 조국통일을
내용으로 4~6개의 문장을 지으시오.

- 고등중학교 2학년 15단원 '그이께서는 림진강기슭을 걸으신다' 59~61p

19/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국어기능영역

*슬기로운 생활
열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글짓기
'엄마아빠'로 사행시를 지으시오!
엄
마
아
빠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가위를
거울을



사슴이 봅니다.

*슬기로운 생활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국어문제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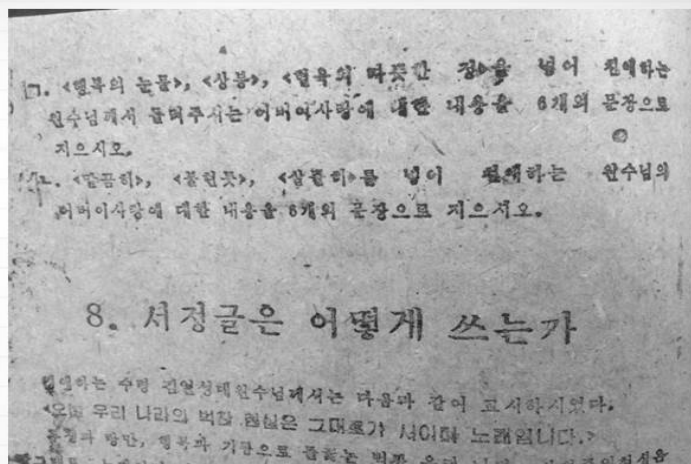
설 가

*과학
관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낸 사람은?

선생님 말씀!!

20/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국어기능영역



21/32

2013년 수학능력시험 홀수형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 화학자 문젠은 꽃잎 안에서 나타나는 물질 고유의 색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꽃잎의 색을 채기한 개신된 머리를 고안함으로써 물질의 색깔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색깔이 겹쳐서 분간이 어려웠다. 이에 물리학자 C. 프리드리히스는 프리즘을 통한 분석을 제안했고 그들은 실제로 물질의 색깔을 분리시키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했다. 이것은 과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꽃잎 안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퍼모양으로 분산시킨 후 방화경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빛이 퍼모양으로 분산되는 것은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그들은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의 스펙트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것들을 함유한 화합물들을 찾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특정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특징적인 빛이 나오는 선의 위치는 그 금속이 혼합된 원소로 존재하는 다른 원소와 겹쳐져 존재하는 물질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의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이 탄생하였다. 이 방법의 중요성은 그들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입증되었다.

1869년 키르히호프는 이 방법을 천문학 분야로까지 확장하였다. 그는 꽃잎 분석 실험에서 관찰한 나트륨 스펙트럼의 두 개의 인접한 밝은 선과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에서 발견한 검은 선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빛의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D선은 태양에서 비교적 가까운 부분인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에 생긴다고 해석했다. 이것은 태양 대기 중의 나트륨이 태양의 더 뜨거운 부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D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보면 D선 이외에도 차가운 태양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 검은 선들이 나타난다. 이 검은 선들은 그 특정 원소가 꽃잎 분석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동일하다.

이후 이러한 원리의 적용을 통해 철과 철을 같은 다른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으며 다른 항성을 연구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를 두고 물리 화학자들

16. 원문을 바탕으로 할 때, ㉓의 함의로 볼 수 있는 것은?

- ㉑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하였다.
- ㉒ 태양빛의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내었다.
- ㉓ 물질을 분광에 넣으면 독특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 ㉔ 프리즘을 이용하여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 ㉕ 천체에 가지 않고도 그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다.

17. 원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루비듐의 존재는 분광 분석법이 출현하기 전에 확인되었다.
- ㉒ 빛을 프리즘을 통해 분산시킨 빛의 파장이 길수록 굴절하는 각이 커진다.
- ㉓ 금속 원소 스펙트럼의 밝은 선의 위치는 물질의 온도에 놓여도 변하지 않는다.
- ㉔ 빛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트륨이 태양 대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먼저 밝혀졌다.
- ㉕ 문젠은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에서 나오는 각각의 색깔이 겹쳐서 현상을 파악하는 머리를 고안하였다.

18. 원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우리 은하의 어떤 항성 ㉑와 ㉒의 빛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니 많은 검은 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것들을 나트륨, 리튬의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비교했을 때,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㉑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㉒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은 각각의 파장에서 항성 ㉑의 검은 선들과 겹쳐졌으나, 항성 ㉒의 검은 선들과는 겹쳐지지 않았다.

- ㉑ 항성 ㉑는 태양이 아니겠군.
- ㉒ 항성 ㉒의 빛의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

22/32

10

국어 영역(A형)

출수형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흡수될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렌즈,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드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렌즈와 피드가 연결되어 배치되어 있다. 피드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렌즈에 해당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컷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컷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컷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렌즈와 피드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컷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랙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좌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드와 렌즈를 구별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드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드 왼쪽에 있는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랙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컷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28. 빛줄에 나타난 머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랙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컷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⑤ 광 컷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29. 빛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었군.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드를 읽을 때보다 렌즈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났군.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갈라질 수 있겠군.

30. 빛줄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드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된 것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5	5	3	3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출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 ②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23/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서울대학교 2015학년도, 연세대학교 2014학년도 입학기준

1. 서울대 : 재외국민전형

- 1) 최근 5년 이내(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에 입국한 새터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2015학년도 수능에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 기준을 충족한 자(음악대학 제외)
- 응시기준별 2개 영역 모두 2등급 이내

2. 연세대: 기회균등 특별 전형

- 2) 검정고시 졸업생도 인정
- 3) 국어B, 수학A, 영어B, 사회/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4 이하

24/32

2. 남북 국어교과 비교

- 수능 테스트

- 대상: 여명학교 고3 재학생(고등졸업학력)
- 기준: 수능 2013년 홀수형 기출(80분, 50문항)
- 평균 정답 문항수: 25(50점)
- 결과: 최고 정답 문항수: 30(60점), 최저 정답 문항수: 20(40점)
- 지문 독해 속도: 3~4시간

참고: 중학생용 도서 기준: 10p-20p, 일반 교양도서 10p-30p / 300p 책 한 권 - 15시간 / 한달~2달

국어A형 점수분포도		평균		표준편차	
		67.91 (-)		20.26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비율(%)	
만점	100 (-)	132	99	1.2	
1등급	96 (-)	128	96	4.3	
2등급	91 (-)	123	89	11.6	
3등급	84 (-)	116	76	24.8	
4등급	76 (-)	108	60	41.1	
5등급	65 (-)	97	40	60.9	
6등급	53 (-)	85	23	77.2	
7등급	40 (-)	72	11	89.1	
8등급	27 (-)	60	4	96.1	

국어B형 점수분포도		평균		표준편차	
		70.07 (-)		19.56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비율(%)	
만점	100 (-)	131	100	0.9	
1등급	96 (-)	127	96	4.4	
2등급	92 (-)	122	89	12.3	
3등급	87 (-)	117	78	23.5	
4등급	79 (-)	109	60	40.9	
5등급	68 (-)	98	40	60.8	
6등급	56 (-)	86	23	77.1	
7등급	43 (-)	72	11	89.1	
8등급	30 (-)	59	4	96.2	

25/32

3. 수업방법 제시

1. 독해해주는 수업(기초 어휘 선택, 한자 어휘 지양)
2. 테블릿 PC와 시각자료 활용의 일상화(설명 시간 단축)
3. 학습 도우미 활용(중국어 능통 학생, 탈북 교사, 자원봉사)
 - 한자어 병기, 중국어 통역
4. 순수문학 교육
 - 한국 대표 문학 선정 학습
 - (이해), 수용, 창작 활동 강화

26/32

3. 수업방법 제시



"마음만 가고 있네 "

아침을 선사해주는
따스한 부뚜막
천리(千里) 먼 안쪽에서
그 집 그리워하네.
가족과 함께 먹던 풀죽 한 숟가락,
그리 지겨웠던 그 곳마저도,
이나마 지금 와서 먹고 싶고, 가고 싶을 줄이야.
굶주린 그때, 왜 이리도 그리운가.
떠나오면 행복일 줄 알았는데,
주체 못 할 이 슬픔 어찌하랴.
밤마다 흐느끼는 슬픈 주인공은
몸은 남은 채, 이 마음만 고향으로 가고 있네.
다시 만날 줄 알았던 잠시의 이별이
이 어쩐 '영이별' 이란 말이고.
그리운 고향 그리며,
몸은 남은 채, 속절없는 이 마음만 가고 있네.
어느 때이면 몸과 마음 다 함께 가랴.
그날 그리네. 그날 꿈꾸네.
기어이 그날을...

27/32

3. 수업방법 제시

5. 활동(수행평가)을 통한 체득 강조
6. 말하기 교육: 발표, 토론 수업을 통한 말하기 능력 향상, 의도된 질문형 수업
7. 쓰기 교육: 모든 활동에 대한 후기 작성, 독후활동 장려, 각종 대회 참가
8. 대학 맞춤식 교육
 - 개별 발표 수업
 - 주간 사설 분석
 - 단계적 수업
(정서적 글쓰기-사실적 글쓰기-비판적 글쓰기/어휘-문장-문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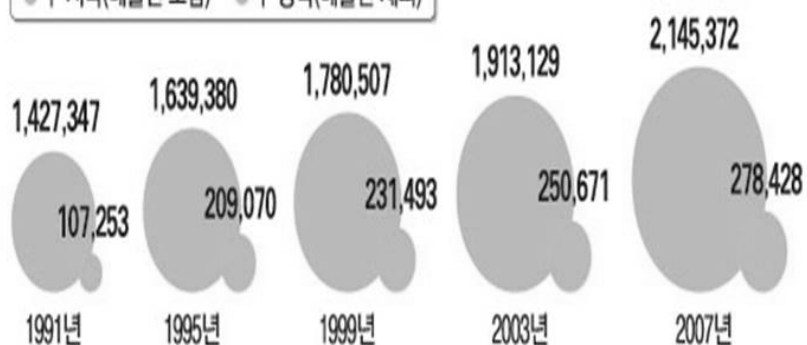
28/32

독일통일 이후 경제

독일 통일 이후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단위=백만유로)

● 구 서독(베를린 포함) ● 구 동독(베를린 제외)

경제
변화



독일통일 이후 교육 통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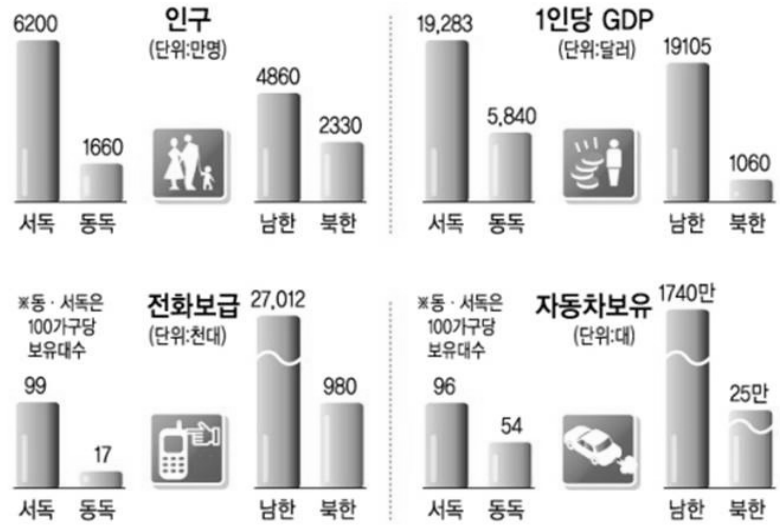
독일 청소년이 제작한 통일 포스터
(동서독 지역간 통합의 상흔과 고통을 표현)



남북한 통일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1990년의 동서독, 그리고 2010년의 남북한

다른 환경
어떻게 통합할
까?



감사합니다!

기획·편집 : 최태경(국립국어원 교육연수와 과장)

이유원(국립국어원 교육연수와 학예연구사)

차 례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말하기(구어) 특징과 자료 활용 방법(양수경, 서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의 표준어 어휘 사용 양상과 외래어 익히기(이기연, 서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가 지원 체계 및 정책(전연숙, 남북하나재단)

남북 언어예절 비교 연구(이대성,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립국어원 국어 정보 활용법(권미영, 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육과 실제(변정훈, 여명학교 교사)

국립국어원 2014-03-08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사 연수 교재

2014년 6월 23일 인쇄

2014년 6월 25일 발행

발행인 : 민 현 식

발행처 :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 (02) 2669-9735
